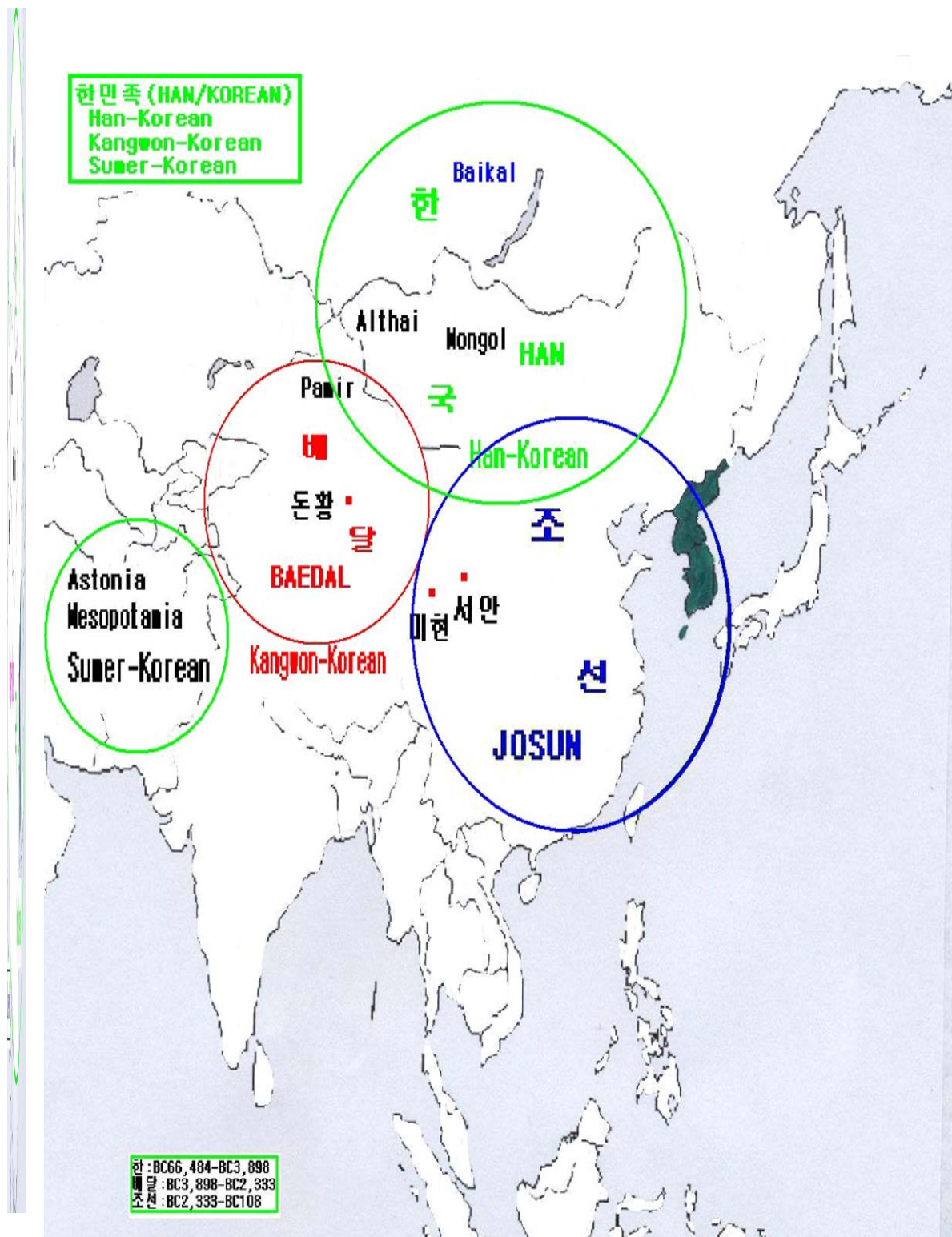


아시아 대륙의
되찾은 ∨ 한민족 상고사 Restored Ancient Han/Korean History



Josun Goindol's Whispering

백 승 천; 한민족상고사연구회(History of Ancient Han/Korean Academy)

031015-101220

차 례

- 100. 머리에. ...15
- 100-1. 한민족 정사: 내거레의 바른 역사를 알자. ...15
- 100-1-1. 민족혼: 북애자의 교훈. ...15
- 100-1-2. 일제의 한국사 말살/왜곡. ...19
- 100-1-3. 한국사서의 연계. ...20
- 100-1-4. **한민족 정사 되찾기; 상실된 뿌리역사의 복원**. ...23
- 100-2. **한민족(桓; 韓); ① 한(桓/韓/肅愼/藝賑/倍達/九黎/夫餘)계 + ② 강원/한(羌嫫/支那/漢)계 + ③ 수밀이(須密爾/虞漏)계**. ...24
- 100-3. 역사시대를 앞당기는 **배달-조선 문명과 인류 5대문명**, 6국시대의 **실종된 역사복원**. ...27
 - * 1. 역사상 한민족/한국의 영역. ...29
- 100-4. 유적의 중요성; **고인돌 문명**; **고인돌은 한-배달-조선의 모습**. ...30
- 100-5. **한민족의 터전; 아시아가 우리의 앞뜰과 뒷동산**. ...32
 - * 2. 우리집 앞마당. ...34
- 100-6. 한민족(Han/Korean: Mongoloid)의 상상을 초월하는 문화영역. ...35
- 100-6-1. 발원. ...37
- 100-6-2. 종족. ...40
- 100-6-3. 언어. ...40
- 100-6-4. 이동. ...40
- 100-6-5. 이동경로별, 시대별 종족, 언어, 국가. ...41
- 100-6-6. 중요 이동경로간 문화적 연결. ...42
- 100-6-7. 한민족의 발원과 산개혼적. ...42
- 100-6-8. 한민족 전통의 개요. ...43
- 100-6-9. Turk계 7국과 Scandinavia까지. ...45
 - * 3. 또다른 백두산 Ararat. ...47
- 200. 서설. ...48
- 200-1. 지구생성과 인류사의 한국. ...48
- 200-1-1. 태초의 혼돈시대와 지구생성 발전. ...48
- 200-1-2. 한반도 지형. ...49
 - * 4. 한반도 위성사진. ...50
- 200-1-3. 한국의 지리적 역사환경, **간도, 대마도 및 독도는 한국땅**, 선춘령 공협진의 육진개척비. ...51
 - * 5. 전기한국, 후기 한12연방국, 배달국, 조선국 위치도. Han-kuk, Baedal-kuk & Josun-kuk. ...51
 - * 6-1. 토문강. ...53
 - * 6-2. 백두산 정계비 부근 수계 답사도. Jiando in Manzhou. ...54
 - * 6-3. 오도백하(토문강). ...55
 - * 6-4. 공협진비. ...56
 - * 6-5. AD1951년 영국 외무성 작성 울릉도와 독도 지도. ...58
- 200-1-4. 한국문화의 특성. ...59
- 200-1-5. 한국인의 특성; 최고의 민족역사와 Atlantis. ...60
- 200-2. 창조시대의 마고성(麻姑城; Castle Mago)과 그 자손. ...65
- 200-2-1. 한계 사서. ...65
- 200-2-2. 강원계 사서. ...66
- 200-2-3. 기타. ...66
- 200-2-4. 중합(朝代名國). ...67
- 200-2-5. 고구려 유적의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69

200-3.	선사시대, 만주와 한반도의 수준높은 한배조(韓培朝) 문화 . ..72
	* 창령 비봉리 출토 소나무 통배. ..75
200-3-1.	전기 구석기시대. ..75
200-3-2.	중기 구석기시대. ..75
200-3-3.	후기 구석기시대. ..76
200-3-4.	신석기시대. ..76
200-3-5.	마고성과 Eden 동산. ..76
	* 7. 구석기유적 분포도. ..77
	* 8. 신석기유적 분포도. ..78
	* 9. 청동기 유적 분포도. ..79
200-3-6.	A. 왜곡된 유럽 중심주의 세계사의 시정 ...80
	B. 인류가 가고 있는 길; BC6000년경 전기대홍수에 의한 인류문명의 수몰. ..80
200-4.	청동기시대의 인류 5대문명과 역사시대의 소급. ..83
	*10. 인류 5대 문명. 5 human cultures. ..83
	A. 인류 5대 문명 . ..85
	* 봉철인의 악기. ..89
	* 11. Greenland의 해빙(The thawing of Greenland)과 축소되는 북극빙하. ..90
	* 12. Mohenjo Daro의 우물탑과 Dwarka 신전. Well-tower at Mohenjo Daro and Dwarka shrine. ..91
	* 13. Indus-Sarasvathi 문명도. Indus-Sarasvathi culture. ..92
	* 14. 수몰지역도. The sunken area. ..92
	B. 배달-조선 문명...영상화한 한민족의 뿌리 . ..93
	* 15. 배달-조선 문명. ..93
	* 16. 고령 양전동 암각화(Rock painting at Yangjun-dong)와 홍릉와문명 유적. ..96
200-5.	한국과 배달 및 조선을 일러주는 암각화와 고인돌. ..98
200-5-1.	암각화 (40,000년 전); 고래잡는 한인과 농사짓는 배달-조선인. ..98
	* 인도 만다르 및 프랑스 귀작 동굴벽화. ..100
	* 17. 반구대 암각화. Rock painting of Bangudae. ..101
200-5-2.	고인돌 문명 ; 고인돌은 한국-배달-조선의 CD.. ..102
	* 18-1. 프랑스 카르나크 열석. ..105
	* 18-2. 영국 Stonehenge. ..105
	* 18-3. 고창 도산리 고인돌, 백분하 계곡 암각화, 홍산문명 도기. ..106
200-5-3.	늑도는 2,200년 전 국제무역항; 조선후기(한반도) 철기시대의 소급 . ..107
	① 한 휴게실; Sumer역사(Ur, Urk, Sumer, Akkad). ...108
200-5-4.	한민족의 정립. ..109
200-5-5.	태극(Tae-Geuk) 한민족과 8괘. ..110
	1. 태극 한민족. ...110
	2. 8괘. ...112
200-5-6.	한민족 국가 계통도 . ..113
300.	한민족의 역사시대. ..117
300-1.	한민족의 신앙, 국명, 왕명, 지명. ...117
300-2.	사서상의 한민족 고대사 개요. ...117
300-3.	한국(桓國) . ..118
300-3-1.	전기 한국 ; BC66,484~BC8936. ...118
300-3-2.	후기 한12연방국 ; BC8936~BC3898. ...118
	* 19. 한국시조 안파견 하느님. The founder of Han-kuk. ...122
	* 20. Nippur 점토판이 일러준 대홍수 이전의 5도시 위치도. 5 cities before the flood disaster in BC6000. ...123
	* 21. BC3500~2500 Mesopotamia; Sumer, Ur, Uruk, Akkad. ...123
300-4.	비단길의 인류 5대문명. ..124
300-4-1.	한민족의 아리랑 고개(Silk Road). ..124

- * Silk Road와 후기 대홍수 이후의 인류 5대문명. ..124
- 300-4-2. 고선지 장군. ..126
- 300-4-3. 5개 열매. ..127.
- 300-4-4. **한민족의 대이동사**. ..128

- 300-5. **배달(청구/신시)국; BC3898~BC2333; 1,565년간**. ..129
 - * 마왕퇴 출토 [黃帝四經] BC2114. ..129
- 300-5-1. 사서상의 배달(청구/신시)국. ..129
 - * 22. 태우의 한웅 천황. ..134
- 300-5-2. **천부경; 본래대로 되돌아 가기(復本)**. ..135
- 300-5-2-1. 천부경 전수. ..135
- 300-5-2-2. 천부경 해설. ..135
- 300-5-2-3. 천부경 81자(전서체). ..140
 - * 23. 천부경 81자와 사서기록. ..140
- 300-5-2-4. 천부경과 관련된 사서 기록(단기고사; 대야발). ..141
- 300-5-2-5. 천부경 관련유적. ..141
 - A. 태극과 곡옥. ..142
 - B. 암각화. ..142
 - C. 빗살무늬 토기. ..143
 - D. Ordos식 동검. ..143
 - E. 금귀걸이. ..143
 - F. 금관. ..143
 - G. 솟대. ..143
 - H. 돈황 벽화. ..143
 - * 24-1-1. 천부경과 태극해설 #1. ..144
 - * 24-1-2. " " ..145
 - * 24-1-3. " " ..146
 - * 24-2-1. 천부경과 태극해설 #2. ..147
 - * 24-2-2. " " ..148
- 300-5-3. **삼일신고**. ..149
- 300-5-4. **참전계경**. ..150
- 300-5-5. **배달(청구)국 14세 자오지 치우 한웅 천황**. ..152
 - * 치우총 비석. ..153
 - * 25. 자오지 치우 한웅 천황; Be the Reds; 대한민국! ..154
 - ② 한 휴게실. ..155
 - 1. 남사고와 탄허의 예언. ..155
 - 2. Ugarit 유적의 점토판 문서로 보는 우리 고대와 강릉 단오제. ..156
 - A. Sumer와 Akkad의 교체. ..156
 - B. 한의 **소머리 나라 Sumer**(須密爾; 蘇末; 松花江). ..156
 - C. Uruk 제3왕조의 진승비문. ..157
 - D. 자부선인의 제자 삼황오제. ..157
 - E. 아사달의 별명 Knossos 궁전. ..158

- 300-6. **조선(朝鮮); 삼조선; 삼한(辰/弁/馬韓); BC 2333~BC108; 2,225년간**. ..160
- 300-6-1. 조선; 통일 대제국. ..160
- 300-6-1-1. **단군 왕검**에 관한 사서의 기록. ..160
 - * 26. 대조선 시조 단군 왕검. ..163
- 300-6-1-2. **아사달**에 관한 사서의 기록. ..164
 - ③ 한 휴게실; 단군 왕검과 제요(帝堯)는 동일인? ..165
- 300-6-1-3. 조선 건국. ..166
- 300-6-1-4. 제후국 53개의 대제국 조선. ..166
- 300-6-1-5. **고대 도움은 여러 곳**; 대제국이 될 수 있는 요소; 청동기 및 철기시대. ..168
- 300-6-2. 사서상의 조선 개요. ..169
 - * 27. **조선 11자치형제국**. ..184
 - ④ 한 휴게실; 지상낙원. ..185
- 300-6-3. **녹도문과 가림토**는 세계문자의 시원. ..186
- 300-6-3-1. 사서의 기록. ..186
 - A. 녹도문으로 쓴 천부경과 산목, 투전목, 서산. ..186

	* 산동성 환대시 출토 가림토 문자(BC3800). ..187
	B. 녹도문, 가림토 38자, 국문정음, 발해문, 언문(훈민정음 28자). ..187
	C. 한문자 이전의 기록들. ..189
	* 백적족 중산국 상형문자(BC1000)와 석봉산 묘지 출토 녹도문자(BC2900). ..191
	* 28-1. 녹도문, 가림토, 투전목, 산목, 신대문, 한자, 기타. ..192
	* 28-2. " ..193
	* 28-3. " ..194
	* 28-4. " ..195
	* 28-5. " ..196
300-6-3-2.	Sumer 설형문자(췌기)와 Rozeta Stone 문자. ..197
300-6-3-3.	한자/갑골문자는 중국문자가 아닌 한민족의 음자. ..197
	* 29. 갑골문자. ..200
300-6-3-4.	일본의 신대문자. ..201
300-6-3-5.	Sumer과 몽골 교착어. ..201
300-6-3-6.	인도 Gujarat 인의 타밀어와 드라비다어. ..202
300-6-3-7.	터키어, 영어, 나시족 상형문자, 기타. ..202
300-6-4.	삼조선의 원리; 천부경의 천지인 과 원방각 ; 모든 종교의 기본. ..204
300-6-5.	조선의 건국기년과 발전 검토. ..206
300-6-5-1.	소위 ‘단군신화’의 의미; 선통/봉선례. ..206
300-6-5-2.	조선의 건국기년, 통치조직, 강철국가 조선. ..208
	A. 건국기년(Foundation). ..208
	B. 통치조직(단군 9가; Ruling Organization). ..209
	C. 한국-배달-조선은 강철국가; 청동/철기시대의 소급. ..210
	* 30. 고구려 개마무사. ..213
300-6-5-3.	암각화/산성/고인돌/청동기/철기/천문도의 검토와 고대국가의 실재 인정. ..214
	* 31. References. ..215
	A. 암각화. ..216
	B. 고인돌. ..216
	* 32-1. 고창 도산리 고인돌. 강화도 부근리 고인돌(사적 제137호). ..219
	* 32-2. 화순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 평남 성천군 용산리 순장 고인돌. 요녕성 개주 석봉산 고인돌. ..220
	* 33. 용덕리 고인돌 별자리 그림. ..221
	* 34. 아득이 고인돌 별자리그림. ..222
	C. 산성. ..225
	D. 비파형/요녕식 동검. ..225
	E. 세형/한국식 동검. ..227
	* 35. 비파형/요녕식 동검, 세형/한국식 동검. ..227
	F. 철기; 쇄거울, 쇄줄칼. ..228
	* 36. 쇄거울. ..228
	G. 천문도/천상열차분야지도. ..228
	* 37. 천상열차분야지도. ..230
300-6-6.	조선의 강역과 경계. ..231
300-6-6-1.	조선의 중심지와 천도; 구려분정과 삼한 분치. ..231
	* 38. 삼조선과 구려분정. ..231
300-6-6-2.	조선의 전체강역과 서부경계. ..233
300-6-6-3.	조선과 하, 상/은, 주의 관계. ..236
300-6-6-4.	조선말기의 동남북부 강역. ..237
	* 39. 조선의 도읍지와 천도. ..238
	* 40. 조선 11자치형제국 및 3자치자매국. ..239
	* 41. 조선 朝代名 #1후국. ..240
	* 42. 조선 자치형제국 연합군의 하/상 공략과 15자치국 설치. ..241
	* 43. 조선 朝代名 #2, #3후국. ..242
	* 44. 조선 후예국과 천도. ..243
	* 45. 우리학계의 조선과 그후예국 지도. ..244
	* 46. Sumer계 조선 후예국 지도. ..245
300-6-7.	조선의 통치제도(관제), 법규, 생활, 세제, 문화, 종교. ..246
	A. 통치제도. ..246
	B. 법규(법금8조). ..248

- C. 생활. ..248
D. 세제. ..249
E. 문화. ..249
* 안동시 저전리 저수지 유적과 출토된 디딜방아 나무 절구공이. ..250
F. 종교. ..250
⑤ 한 휴게실. ..251
A. 바람 피우는 건달들. ..251
B. 못 말리는 흉노(匈奴; Huns/Scythai/Scytai/Skitai; 風; feng; Hittite). ..253
300-6-8. **기자 조선과 기자 동래설의 날조; 서우여-변조선.** ..254
⑥ 한 휴게실. ..256
A. Astonia와 Mesopotamia의 한민족 후예. ..256
B. 우주대운. ..258
C. 그리스 신화는 단군 조선의 역사. ..259
* Turkey 일대의 유적과 역사유물. ..261
- 300-7. 예맥, 북부여, 위만 변조선과 거짓 한사군설, 가섭원(동) 부여, 갈사, 옥저, 최리(승)낙랑,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왜, 발해. ..262
300-7-1. 조선-예맥-부여-고구려의 연결. ..262
- 300-7-2. **부여(夫餘); BC239~BC57.** ..263
300-7-2-1. 사서상의 북부여(BC239~AD57; 296년간). ..263
300-7-2-2. **위만-변조선과 거짓 한사군설.** ..265
* 47. 기존학계의 삼한 및 4군 지도. ..266
* 48. 조선후기 변조선의 서부경계, **변조선 자치4군(한4군이 아님).** ..267
* 49. **조선 후예국(BC239~AD668)의 중기 이후 강역 추정도.** ..268
300-7-2-3. 가섭원(동) 부여, 갈사, 옥저. ..269
300-7-2-4. 예맥, 옥저, 왜, 최리(승) 낙랑국. ..269
300-7-2-5. 부여사의 복원. ..270
- 300-7-3.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왜, 발해. ..272
300-7-3-1. **대제국 고구려(高句麗); BC232~AD668; 900년간.** ..272
A. 국호와 건국. ..272
B. 생활과 규범. ..273
C. 사서상의 고구려; **기년과 역년 900년.** ..274
C-1. 고구려의 역년과 기년. ..274
C-2. 사서상의 고구려 개요. ..276
* 현토군(요동) 위치와 소위 한4군. ..277
* 낙랑, 현토, 졸본, 진번, 요동, 대방, 소위 한4군 관련지명. ..281
D. 고구려의 도읍, 성, 무덤, 벽화, 유물... Fantastic Kokooryo!! ..283
* 50. 고구려 성곽 분포도. ..285
* 51. 평양 및 집안 부근 고구려 유적도. ..288
* 52-1. 집안 산성자산성/위나산성과 고분군. ..289
* 52-2. 동 청룡(강서 중묘). ..290
* 52-3. 서 백호(무용총). ..290
* 52-4. 남 주작(강서 대묘). ..291
* 52-5. 북 현무(통구 사신총). ..291
* 52-6. 북 현무(강서 대묘). ..292
* 52-7. 아프리카시압 궁전 벽화의 고구려 사신. ..292
* 53. 광개토경호태왕비. ..293
E. **광개토경호태왕 비문과 왜의 3세기 임나일본부 날조.**
김해지역≠임나=대마도. ..293
* **유주자사 진의 13태수.** ..297
* 최초의 호태왕비 사진. ..298
* 54-1. 호우 그릇. ..304
* 54-2. 고구려의 거란/후연/수/당/백제/신라/가라/왜 등 공략도. ..305
* 55. 井자 문양이 있는 고구려 유물 출토지. ..306
* 56. 井자 문양이 있는 고구려 토기. ..307
* 57. 몽촌토성 출토 고구려 항아리. ..308

- * 58. 고구려의 서북 정벌도(AD395-AD408). ..309
 - F. 아단성과 아차성. ..310
 - G. **을지문덕과 강이식 장군의 살수대첩**; 130만의 수장과 수의 패망. ..311
 - H. 충주 중원 고구려비; 고구려의 신라/가라 주둔과 왜 개척. ..313
 - I. 연개소문은 민족의 영웅. ..315
 - * 연개소문 자손 묘. ..317
 - J.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317
- * 59. **수당의 패전 위치도**. ..318

- 300-7-4. **백제(百濟); BC213~AD663; 876년간**. ..319
 - 백제사의 중복성과 역사상실. ..319
 - 백제시조에 관한 사서의 기록. ..319
 - 백제의 조직과 통치. ..320
 - 백제의 생활. ..320
 - 사서상의 백제. ..320
 - A. 위구태 백제: 대륙 백제. ..320
 - B. 비류 백제: 어하라 백제. ..323
 - C. 본국 백제: 온조 백제. ..323
 - D. 왜 백제. ..324
 - E. 백제의 부흥전쟁. ..324
 - * 60. 본국 백제 지도(한반도내). ..325
 - * 61. 본국 백제 유적 분포도. ..326
- 300-7-4-6. 백제의 유물, 문화와 왜/일본. ..327
 - A. **서울의 하남 위례성과 장고형 고분군**의 숨겨진 사연과 비밀폭로. ..327
 - * 62. 풍납/몽촌 토성, 이성산성 일대 위치도와 칠지도... ..330
 - B. 칠지도(七支刀); 일본국보. ..330
 - C. 무령왕능과 왜; 일본은 백제일 뿐...331
 - * 63. 환두대도. ..332
 - * 64. 백제 대향로. ..334
 - D. 백제 대향로; 사부곡 은은한 백제예술의 극치. ..335
 - E. 미륵사와 석탑;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꿈. ..336
 - F. 백제혼이 살아있다. ..337
 - * 65. 일본에 있는 한국문화 유적. ..338

- 300-7-5. **신라(新羅); BC238~AD935; 1,173년간**. ..339
 - 초 중기 신라의 혼란성과 역사실종(BC238?-AD758년 이전). ..339
 - 신라의 기원, 국호, 도읍. ..339
 - 사서상의 신라(BC238?-AD935). ..341
 - 신라의 저력. ..342
 - * 66. 본국신라 지도. ..343
 - * 67. 본국신라 유적도. ..344
- 300-7-5-5. 신라의 유물, 문화, 사회상. ..345
 - A. 신라인의 삶; 야외 박물관과 1,500년 전 도시계획. ..345
 - B. 신라의 교역과 경제; 국제무역과 왜 상류사회 문화형성. ..347
 - C. 신라 여성의 지위; 선덕, 진덕, 진성 3 여왕과 원화/화랑. ..348
 - D. 신라토우. ..349
 - E. 신라의 삼년산성. ..350
 - F. 신라에 온 로마 유리. ..351
 - G. 아시아 유일의 신라금관 (AD356~503). ..352

- 300-7- 6. **가라/가야/가락 연맹(加羅/加耶/駕洛); BC238경~532; 768년간**. ..354
 - 가라/가야의 기원, 국명, 영역과 혼란성. ..354
 - 사서상의 **가라/가야와 왜 개척**. ..356
 - * 6 가라/가야 연맹 지도. ..358
- 300-7-6-3. 누락된 가라/가야 역사와 왜의 임나일본부 날조. ..358
- 300-7-6-4. 금관가야; 1,600년 전 POSCO, 고구려의 금관가야 복속과 왜의 임나일본부 날조, 삼국사기가 외면한 가야. ..360
- 300-7-6-5. 김해 예안리 유적; 가야인과 부여인의 왜 개척. ..362

- 300-7-7. 왜. ..363
- 300-7-7-1. 사서상의 왜. ..363
- 300-7-7-2. 야요이를 아스카로 바꾼 가라(韓). ..364
- A. 가라/가야의 흔적들. ..364
- B. 수로왕의 둘째 딸 묘견은 야마토 여왕 히미코. ..365
- 300-7-7-3. 왜-백제에서 일본-백제로. ..367
- 300-7-7-4. 일본-고구려? ..369
- 300-7-7-5. 일본-신라는 사라지는가? ..369
- 300-7-7-6. 일본말의 뿌리. ..370
- 300-7-7-7. 일본의 악랄한 범죄; 분서. ..370
- * 68. 배달국 한웅천황을 모시는 왜-일본, 법륜사 대보장전의 백제 관음상. ..372
- * 69. 광륜사의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담징이 그린 법륜사 금당벽화. ..373
- * 70. 대마도내 한국유적. ..374
- 300-7-8. 후고구려/발해/대진(後高句麗/渤海/大震); AD698~926; 239년간. ..375
- 300-7-8-1. 발해의 건국, 시조, 영역. ..375
- * 71. 이정기의 제국. ..375
- 300-7-8-2. 사서상의 발해; 남북시대의 해동성국과 이정기의 제국. ..377
- 300-7-8-3. 발해의 부흥운동. ..379
- 300-7-8-4. 발해와 일본의 교역. ..380
- 300-8. 한민족이 아시아 대륙의 지배자;
- 배달과 조선은 물론이고 부여/고구려/백제/신라/가라도 대륙을 지배했다. ..382
- 300-8-1. 강원계 사서의 읍조림. ..382
- 300-8-2. 조선 후예국 관련지명. ..382
- 300-8-3. 삼국사기의 기록. ..387
- 300-8-4. 부여/고구려/백제/신라/가야의 위치; 태행산맥 이동. ..390
- 300-8-5. 바른 역사로 환원. ..392
- 300-8-6. 황산벌 전장은 중국대륙 이다. ..393
- * 72. 황산벌 전장의 지명과 상황. ..395
- * 73. 황산 전투도. ..396
- * 74. 황산벌 부근도. ..397
- 300-8-7. BC300~AD1,000 시기의 아시아 대륙내 한계 연방국가의 위치. ..397
- * 75. 아시아 대륙내 한계 연방국가 위치. ..398
- 300-8-8. 일식현상과 역사; 몽골의 고구려, 북경의 백제, 장강의 신라. ..399
- * 76. 삼국사기의 천체관측기록을 천문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한 삼국의 위치. ..400
- * 77. 요동/요서와 유연제로 몇 오월 위치도. ..401
- ⑦ 한 휴게실; Astoria와 Mesopotamia의 한민족 후예. ..402
- A. 후기조선, 부여, 고구려. ..402
- B. 또다른 대제국 부여(Media)의 건국과 천도. ..403
- C. Media(부여). ..404
- D. Achaemenes(부여/고구려)와 Alexander왕. ..405
- E. 주몽의 고구려. ..406
- F. 호동왕자와 Midas 왕. ..408
- G. Parthia(백제). ..449
- H. Bactria(신라). ..410
- I. Mauria(가야). ..411
- J. Alexander와 진 상황. ..412
400. 실종된 역사의 복원과 고대사 인정. ..414
- 400-1. 한민족의 대이동. ..414
- 400-2. 조선말기의 민족 대이동과 수밀이계 한민족의 귀향. ..414
- 400-3. 역사복원의 근거. ..418
- 400-4. 한민족 고대사(한국, 배달국, 조선)의 역사인정. ..419
- 400-5. 부여/고구려/백제/신라/가라의 건국기년 및 역년과 중앙 아시아의 역사검토. ..420

- ⑧ 한 휴게실: 속타는 소리. ..422
- ⑨ 한 휴게실: 쭉 물 한잔. ..423
- 맺는 말. ..424

영문 차례. ..10

- 부록;
- a. * 78-1—8. 왕실 세계도. ..425
 - b. 첨부영상 명세. ..433
 - c. 색인. ..436
 - d. 참고문헌. ..446
 - e. * 79. 680628. ..449
 - f. 뒷 표지. ..450

Restored Ancient History of Han/Korean

100. Introduction. ..15
- 100-1. The right and original Han(한; 桓)/Korean history. ..15
- 100-1-1. Racial characteristics of Han/Korean. ..15
- 100-1-2. **Obliteration and falsification of Han/Korean history by Jap.** ..19
- 100-1-3. Linking of domestic Han/Korean historical books. ..20
- 100-1-4. Restoration of the lost/real history. ..23
- 100-2. **Han/Korean(한민족; 韓民族) = Han-Korean(한; 韓) +**
Kangwon(Chinese)-Korean(강원/한; 羌婁/漢) +
Sumer-Korean(수밀이; 須密爾). ..24
- 100-3. **Baedal-Josun culture(배달-조선 문명; 倍達-朝鮮 文明) & 5 human cultures.** ..27
- 100-4. Importance of historic remains; **Goindol Culture;**
Goindol(고인돌) reflects the actual circumstances. ..30
- 100-5. Our yard and hill in whole Asia/China. ..32
- 100-6. The origin and migration of Han/Korean stand above your guess. ..35
- 100-6-1~9. Origin, race, language, migration, states, cultural link, traces, tradition & Turks. ...37
200. Introductory. ..48
- 200-1. Earth-formation and Han/Korean in human history. ..48
- 200-1-1. Chaos and formation of the Earth in the beginning. ..48
- 200-1-2. The lay of Korean Peninsular. ..49
- 200-1-3. Geographical and historical condition; **Jiando/Tsushima/Dokdo.** ..51
- 200-1-4. Specific character of Han/Korean culture. ..59
- 200-1-5. Han/Korean maintain the longest history of 68,487 years; Atlantis? ..60
- 200-2. Mago castle(마고성) and her descendants. ..65
- 200-2-1~4. Registering **Kokooryo heritages** to UNESCO. ..69
- 200-3-1~5. The prehistorical age; High-leveled culture in Manchuria & Korean peninsular. ..72
Mago castle and Eden...76
- 200-3-6. A. **Reforming of Western Civilization/Eurocentrism.** ..80
B. Human cultures had been destroyed by flood disaster in abt 6,000 BC. ..80
- 200-4. 5 human cultures and retroactive historic periods. ..83
A. **5 human cultures.** ..85
B. **Baedal-Josun culture.** ..93
- 200-5. Rock painting and **Goindol**(Baedal-Josun's dolmen) inform you to Baedal-Josun. ..98
- 200-5-1. Baedal-Josun Gray Whale will be glad to introduce you to the fisher of
40,000 years ago. ..98
- 200-5-2. Goindol Culture. ..102
- 200-5-3. Neukdo(늑도) was the trade port for iron in 2,200 years ago. ..107
① Han Ref. Rm.; History of Ur, Uruk, Sumer and Akkad. ..108
- 200-5-4. Formation of Han/Korean. ..109
- 200-5-5. Taekuk(태국) and eight symbols. ..110
- 200-5-6. **Han/Korean National System.** ..113
300. Historical age of Han/Korean. ..117
- 300-1. Faith, name of states, Emperor/king and places. ..117
- 300-2. An outline of ancient Han/Korean history. ..117
- 300-3. **Han-Kuk(한국; 桓國).** ..118
- 300-3-1. The former Han-Kuk(전기 한국); BC66,484~BC8,936. ..118
- 300-3-2. The latter Federal Han-Kuk of 12 states(후기 한12연방국);
BC8936~BC3,898. ..118
- 300-4. Silk Road(Arirang Folks Village; 아리랑 고개), the 5 human cultures and
Han/Korean migration. ..124
- 300-5. **Baedal-Kuk(배달국; 倍達/靑丘/神市);** BC3,898~BC2,333. ..129

- 300-5-1. Baedal-Kuk in historical books. *The Bronze & Iron Age...129
- 300-5-2. **Chunbookyung**(천부경; 天符經). ..135
- 300-5-3. **Samil Prayer**(삼일신고; 三一神誥). ..149
- 300-5-4. **Chamjon Testaments**(참전계경; 參佺戒經). ..150
- 300-5-5. The Emperor Jaoji Chiwoo(자오지 치우; 慈烏支 蚩尤) of Baedal-Kuk. ..152
- ② Han Ref. Rm.;
Prediction by Namsago(남사고) and Buddhist priest Tanhu(탄허).
Ugarit clay tablet and Dan-o festival at Gangheung(강능 단오제).
Respected Jaboo(자부) and his disciples of 3 emperors & 5 kings
(삼황오제), Knossos palace at Crete is the nick name of Asadal. ..155
- 300-6. **Josun-Kuk**(조선국; 朝鮮國); 3 Josuns; 3 Hans; BC2,333~BC108. ..160
- 300-6-1. Unified Cosmos Empire of Josun. ..160
- 300-6-1-1. Historical records on **Dankun(the Emperor) Wanggum**(단군 왕검; 檀君王儉). ..160
- 300-6-1-2. Historical records on capital Asadal(아사달). ..164
- ③ Han Ref. Rm.; Dankun Wanggum and King Yao(요; 堯);
Are they the same one? ..165
- 300-6-1-3. Establishment of Josun. ..166
- 300-6-1-4. Unified Cosmos Empire of 53 states. ..166
- 300-6-1-5. **Several capitals in ancient time in Bronze & Iron Age.** ..168
- 300-6-2. The outline of Josun in historical books. ..169
- ④ Han Ref. Rm.; Paradise on the earth. ..185
- 300-6-3. **Nokdo and Garimto alphabet**(鹿圖와 加臨土 문자); The earliest standardized form/character in the world. ..186
- 300-6-3-1. Historical records. ..186
- A. Nokdo, Sanmok(산목), Toojonmok(투전목) & Susan(서산) alphabet. ..186
- B. 38 Garimto alphabets. ..187
- C. Records written by others before Chinese character(한자). ..189
- 300-6-3-2. Sumer-cuneiform and Rozeta stone alphabet. ..197
- 300-6-3-3. ‘ **Chinese/Gabgol Character** ’ is not Chinese but Han Character. ..197
- 300-6-3-4. Japanese fabulous Ahiru alphabet(아히루; 阿比留). ..201
- 300-6-3-5. Agglutinative language of Sumer and Mongol. ..201
- 300-6-3-6. Tamir and Dravidian language of Indics ..202
- 300-6-3-7. Turkish, English and cuneiform of Nasi. ..202
- 300-6-4. The principle of 3 Josuns; **Heaven/Earth/Man**(천지인; 天地人) and/or **Circle/Square/ Triangle**(원방각; 圓方角); The original and basic principle of all religions. ..204
- 300-6-5.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Josun. ..206
- 300-6-5-1. The meaning of so-called ‘ **Dankun Mythology** ’ ; Ritual procedure of Buddhist meditation ‘ **Dhyana** ’ (봉선례; 奉禪禮). ..206
- 300-6-5-2. The year of National foundation, ruling organs and Iron-Aged empire. ..208
- 300-6-5-3. A study on rock painting, castle, Goindol, Bronze & Iron wares and astronomical charts→Verification of existence of Baedal & Josun Empires. ..214
- A. **Rock painting** (암각화); Baedal-Josun gray whale sing pop song in chorus. ..216
- B. **Baedal-Josun Goindol’ s astronomical chartes** (별자리 그림) show up when they’ d been drawn ..216
- C. **Baedal-Josun hill castle** (산성) had long kept the owner’ s symbol. ..225
- D/E. **Lute-typed and short-typed Baedal-Josun copper swords**(비파형과 세형동검) confess the cultures. ..225
- F. **Baedal-Josun ironwares**(철기) make clear the territory. ..228
- G. **Baedal-Josun astronomical chart** tell the ideology of Iwhahongik. ..228
- 300-6-6. Territory. ..231
- 300-6-6-1. Middle area and capital transferring, separate control by 3 Hans and 1 special district system(Kooryo-boonjung; 구려분정; 九黎分政). ..231
- 300-6-6-2. Whole territory and western boundary. ..233
- 300-6-6-3. Relation to Xia(하; 夏), Shang(상; 商)/Yin(은; 殷) & Zhou(주; 周). ..236

- 300-6-6-4. Eastern/Western/Northern boundary at the end of Josun. ..237
- 300-6-7. Government organization, regulations, living, taxation, civilization and religion. ..246
 ⑤ Han Ref. Rm.; Poong(풍; 風); feng(풍; 風); Huns(훈; 獮; 흥/悶); Scythai. ..251
- 300-6-8. **The falsed ‘ Kija Chosun’ should be changed to ‘ Suwooyeo-Byun Josun’** ..254
 ⑥ Han Ref. Rm.;
 Han/Korean and his/her relatives in Astonia and Mesopotamia.
 The cosmic fortune. Greek mythology is the story of late Josun. ..256
- 300-7. Yeamaek, Booyeo, Okju, Galsa, Nakrang, Kokooryo, Baekje, Shinla, Kara, Woe, Balhae, the false Weeman-Josun and 4 counties of Chinese Han. ..262
- 300-7-1. Succession from Josun to Yeamaek, Booyeo and Kokooryo. ..262
- 300-7-2. **Booyeo(부여; 夫餘); BC239~BC57.** ..263
- 300-7-2-1. Northern Booyeo(북부여) in historical books. ..269
- 300-7-2-2. **Weeman Byun-Josun(위만 변조선) and the false 4 counties of Chinese Han(한4군; 漢四郡).** ..265
- 300-7-2-3. Eastern/Gasupwon Booyeo(동/가섭원 부여), Okju(옥저) and Galsa(갈사). ..269
- 300-7-2-4. Yeamaek(예맥), Okju(옥저), Nakrang(낙랑) and Woe(왜). ..269
- 300-7-2-5. Restoration of Booyeo history. ..270
- 300-7-3. Kokooryo, Baekje, Shinla, Kara, Woe and Balhae. ..272
- 300-7-3-1. **Kokooryo the Great! (고구려; 高句麗); BC232~AD668.** ..272
 A. The name and establishment. ..272
 B. Living and regulation. ..273
 C. Kokooryo in historical books; Establishment and Duration of 900 years. ..274
 D. Capital, castle, tomb, mural painting and the cultural heritages. ..283
 E. **The monument of Kanggaetokyeong the Great (광개토경호대왕비)** and the false opinion of Jap’ s county in Korean peninsular(임나일본부). ..293
 F. Castle Adan/Ondal and Acha(아단성과 아차성). ..310
 G. The defeat and fall-down of Sui(수) by **general Euljimoonduk(을지문덕)** and **Ghangisik(강이식)** at Salsoo(살수) river. ..311
 H. Kokooryo monument at Choongjoo(충주). ..313
 I. **General Yungaesomoon’ s(연개소문)** triumph against Tang(당). ..315
 J. Registering to UNESCO. ..317
- 300-7-4. **Baekje(백제; 百濟); BC213~AD663.** ..319
- 300-7-4-1. Overlapped and lost history of Baekje. ..319
- 300-7-4-2. Records on the founder in historical books. ..319
- 300-7-4-3. Ruling and organization. ..320
- 300-7-4-4. Living. ..320
- 300-7-4-5. Records in historical books;
 Weegutae-Baekje(위구태-백제), Daeryook-Baekje(대륙-백제),
 Biryoo-Baekje(비류-백제), Uhara-Baekje(어하라-백제),
 Bonkuk-Baekje(본국-백제), Onjo Baekje(온조-백제),
 Woe-Baekje(왜-백제). ..320
- 300-7-4-6. Vestiges and remains; Castle Weerye(위례성), Seven-edged sword(칠지도), King Mooryung’ s tomb(무령왕능), Incense-pot(향로), Temple Mireuk(미륵사) and pagoda, Baekje Spirit. ..327
- 300-7-5. **Shinla(신라; 新羅); BC238?~AD935;** ..339
- 300-7-5-1. Confused and lost history of early stage. ..339
- 300-7-5-2. Origin, name and capital. ..339
- 300-7-5-3. Records in historical books. ..341
- 300-7-5-4. Potential energy for unification. ..342
- 300-7-5-5. Remains, cultue and living. ..345

- ; City planning before 1,500 years and the outdoor museum,
International trade, 3 Queens and Wonhwa & Hwarang system
(원화와 화랑제도), Clay dolls, castle, golden crown.
- 300-7-6. **United Gara(가라 연맹; 加羅)**; BC238경 ~AD562. ..354
- 300-7-6-1. Origin, name, territory and confused history. ..354
- 300-7-6-2. Records in historical books and colonizing Jap(왜 개척). ..356
- 300-7-6-3. Lost history and the false opinion of Japanese county in Korean peninsular. ..358
- 300-7-6-4. Geumkwan-Gara(금관가라) and the POSCO 1,600 years ago. ..360
- 300-7-6-5. Relics from Yeanri(예안리) tomb group and the colonizing Jap. ..362
- 300-7-7. Woe(왜; 倭; Japan). ..363
- 300-7-7-1. Records in historical books. ..363
- 300-7-7-2. **Gara developed Yayoi(야요이; 彌生) to Asuka(아스카; 飛鳥)**. ..364
; Queen Himiko(히미코; 比彌呼) = Princess Myokun(묘견; 妙見; Miyoko)
= King Sooro's(수로왕; 首露王) daughter.
- 300-7-7-3. From Woe-Baekje(왜백제; 倭百濟) to Ilbon-Baekje(일본백제). ..367
- 300-7-7-4. Ilbon-Kokooryo(일본고구려)? ..369
- 300-7-7-5. Ilbon-Shinla(일본신라)? ..369
- 300-7-7-6. Korean is the root of Japanese language. ..370
- 300-7-7-7. The most vicious and nasty **burning of Korean historical books and documents by Japan**. ..370
- 300-7-8. **Balhae(발해; 渤海)**; AD698~AD926. ..375
- 300-7-8-1. Establishment, founder and territory. ..375
- 300-7-8-2. Records in historical books...377
- 300-7-8-3. Restoration of Balhae. ..379
- 300-7-8-4. Trade with Japan. ..380
- 300-8. **Han/Korean ruled Asia including China up to the 7th century**. ..382
- 300-8-1. Chinese flattering described in Chinese historical books. ..382
- 300-8-2. The names of places in China related to Korean dynasties. ..382
- 300-8-3. Records in Samkuk-Saki(삼국사기). ..387
- 300-8-4. Locations of 5 dynasties(Booyoe/Kokooryo/Baekje/Shinla/Gara) in China. ..390
- 300-8-5. Restoration of the ancient Han/Korean history. ..392
- 300-8-6. **Hwangsan(황산; 黃山)**, the last battle-field of Baekje, is located in China. ..393
- 300-8-7. **Locations of federal Han/Korean dynasties in China during BC300~AD1,000**. ..397
- 300-8-8. Solar eclipse made clear the locations of Kokooryo/Baekje/Shinla. ..399
- ⑦ Han Ref. Rm.; Han/Korean in Mesopotamia. ..402
- A. The late Josun, Booyoeo and Kokooryo. ..402
- B. Booyoeo(부여제국). ..403
- C. Media(부여). ..404
- D. Achaemenes(고구려). ..405
- E. King Joomong(주몽) and Alexander. ..406
- F. Prince Hodong(호동 왕자) and King Midas. ..408
- H. Bactria(신라). ..410
- I. Mauria(가라). ..411
- J. Alexander and Qin-shihuang(진 시황). ..412
400. Restoration of the lost history and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of ancient empires; Han, Baedal and Josun. ..414.
- 400-1. Han/Korean migration. ..414
- 400-2. Han/Korean migration in the late Josun and Sumer-Korean's returning to old home in China. ..414
- 400-3. Reasonable bases to recognize the restoration and the existence of ancient empires. ..418

400-4.	Cofirmation of Han-Kuk, Baedal-Kuk and Josun-Kuk. ..419
400-5.	Study to restore the foundation, period and others on 5 dynasties located in both China and Korean peninsular together with the history of Mesopotamia. ..420
	⑧ Han Ref. Rm. ..422
	⑨ Han Ref. Rm. ..423
	Epilog. ..424
	Eppendix; a. Royal family trees of Kokooryo/Baekje, Shinla, Gara and Balhae. ..425
	b. Scanned images list. ..433
	c. Index. ..436
	d. Reference Documents. ..446
	e. 680628. ..449
	f. Cover. ..450

100. 머리에. Introduction.

100-1. 한민족 정사; 내겨레의 바른 역사를 알자.
The right and original Han/Korean history.

100-1-1. 민족혼; 북애자의 교훈.
Racial characteristics of Han/Korean.

AD1980년 1월 나는 AD1675년의 북애자(北崖子)를 만났다. -[규원사화(揆園史話)].

과거에 낙제하고 붓을 던진 채 방황하며 전국을 돌다가, 압록강 건너 저편 조상이 살던 옛 강토가, 남의 손에 넘어간지 이미 천년(AD668의 고구려 멸망 기준)되었다고 울부짖던 그 노인이, 오직 본성만을 간직하고, 후손들이 본받게 할 뿐이라고 하며 남긴 우리 역사서! 조선에 국사가 없음이 가장 큰 걱정 이라고 잠을 설쳐가며 엮은 책, 300년 동안의 금서. '슬프다! 후세에 이 책 잡고 우는 사람이 있다면 내 녀이라도 한 없이 기뻐하리; 憶后世若有執此書而歌哭者是乃余幽魂無限之喜'라고 그는 절규했다.

몇 달씩 메달리다가 미루다 또 내던져 버리다 보니 세월만 흘러갔다. 할일이 없어서가 아니다. 손 닿는대로 읽고 모은 책이 100여권이 넘어갈 쯤에서, 잠 못 이룬 북애노인을 이해할 것 같았고, 여러 날을 꼬박 새우기도 하며, 없는 총기에 같은 것을 두고 되풀이 읽다가, 요약하고 대비한 것이 버릴 수는 더욱 없고 나에게서는 너무도 소중했다.

북애노인은 조국을 부강하게 그리고 민족을 번영되게 하는 방법으로 지리, 인화, 보성(保性)의 삼대 구국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①.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해야 하고(地廣而物博),
- ②. 사욕을 추구하는 당쟁을 버리고 화합해야 하고(人衆而合),
- ③. 항상 민족고유의 본성을 보유하고 장점을 잃지 말아야 한다(恒守其性而不失其長).

지리(地利)를 얻으려면 옛 땅을 되 찾아야 한다(多勿).
사대존화를 배격하고 나라를 빛내는 자주적인 국사를 가져야 한다.

김부식이 2,000년 전 조상의 공적은 기술하지 않고 해동삼국 만 운운한 채, 고구려 동천왕이 천도할 때에야 겨우 '평양은 본시 신인 왕검이 있던 곳 이니...' 라는 한마디 만 적었으니, 근세에 조선 세조 때에도 있었던 [조대기(朝代記)], [지공기(誌公記)], [조선비기(朝鮮秘記)], [삼성기(三聖記)] 등은 왜 보지도 않았으며, 발해역사는 왜 없느냐고 질타한다.

자기의 장점을 지니고, 남의 장점을 겸하면 이긴다(保己長而兼人之長者霸). 그러나 자기의 장점을 버리고 남의 장점 만을 쓰는 자는 약해진다(棄己長而用人之長者弱). 자기의 장점을 버리고, 남의 단점 만을 취하는 자는 망한다(棄己長而用人之弊者亡)고 노인은 끝맺음을 했다.

그러면 우리 한민족의 장점은 무엇인가? 무엇을 지녀야 한다는 말인가?

어릴 때에 위대한 것, 숭고한 것을 보고 듣고 배울 때 존경과 애국심이 싹트고 꿈이 영근다. Aristoteles로 부터 열세살 때에 역사와 철학을 배운 Alexander 에게 Greece 고대사 (조선역사?)는 그가 꿈을 키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Persia 정복, 70개의 신도시 건설, Danube 강에서 Indus 강까지의 대제국을 건설하느라 20세부터 죽을 때(34세) 까지 늘 원정 길에 있었던 그의 족적은 심히 크다.

고대유적은 우리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위대한 세계로 안내해 준다.

압각화와 고인돌은 속삭인다.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고 가슴을 설레게 한다. 조상의 흔적이 보이고 들리고 또 만져진다. 여태 인류가 풀지 못한 비밀의 실타래 그것 이다.

나의 뿌리는 무엇이며 우리 역사의 머리는 무엇인가?

젊은이가 자기의 뿌리인 고대사를 알면(Alexander 처럼) 원대한 꿈을 지닌 영웅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뿌리를 모르며 살고 있다. 숨겨졌고 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 잘 못 살아온 것으로 아는 자학사관(自虐史觀)을 버려라.

본래의 위대한 한민족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

한민족의 고대사는 한반도가 아닌 아시아 대륙에 있었다.

젊은이들에게 애국심과 민족의식이 없으면 그나라의 미래도 없는 법.

유태인은 2,000년 동안 유랑했지만, 그들의 말과 역사와 종교를 지켰기 때문에 나라를 되 찾았다.

한민족의 혼, 말, 역사를 바로 알고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자.

바른 역사를 찾는 일에 매진하자.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고, 그것은 현실사회에 잘 적응되어 나타나고 있다.

사물놀이와 난타가 온 세계인을 두들겨 패주는데 모두들 즐겁단다. 왜 그런가?

한민족의 후예로 태어나서 한국말을 하고 한민족의 전통을 지켜오는 우리(나)가 우리 역사를 통하여 얻는 교훈은 올바른 민족정신, 올바른 삶의 가치관 그리고 복본(復本)하는 미래관 이리라. 본래대로 되돌아 가는 것! 그것은 천부경 정신과 우리의 본래(뿌리)를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잊지 마라. 나의 뿌리(근본)를 도륙(屠戮)한 괴물은 一 十八女人(倭) 이다.

본서의 바른 이해를 위하여 알아 두어야 한다.

민족사(Racial History)는 국가의 역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씨족사회(Clan Society)

또는 그 이전까지 소급하여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와 건국은 민족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역사인식의 출발점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아직은 교과서가 아니나 ‘桓/韓民族正史’임을 주창하고 초점은 이러하다; 多勿!

1. 한민족은 ① 한계(韓系; Han/Korean), ② 강원계(羌婁系; Kangwon/Chinese) 및 ③ 수밀이계(須密爾系; Sumer/Ur) 한민족으로 구분되고, 아리랑 고개(Silk Road)를 넘어 온 세계로 대이동했다.
2. ① 고인돌 문명, ② 한배조(韓培朝) 문명, ③ 배달-조선 문명, ④ 인류 5대 문명으로
a 청동기와 철기시대는 소급되어야 하고, b 유럽중심주의 세계사는 시정되어야 하고,
c 고대 한민족의 강역은 아시아 대륙 전체이고, d 한민족의 역사시대는 소급되고,
e 한국-배달-조선은 유일한 상국(上國)으로 실재했으며, 그 유적이 그들의 실재강역인 아시아 대륙 전체에 산재해 있는 한배조 문명이다.
3. 한자(漢字)는 중국이 아닌 한(桓/韓)민족의 한자(桓字/韓字; 녹도문/가림토) 이다.
4. 삼한(三韓/三朝鮮; 辰弁馬韓)은 한반도가 아닌 아시아 대륙 전체를 지배했다.
5. 기자조선은 서우여 변조선(徐宇余 弁朝鮮)이고 평양이 아닌 발해 연안에 있었다.
6. 위만조선은 변조선 자치4군(弁朝鮮 自治四郡)이고 한반도와 만주가 아닌 발해 연안에 있었다.
7. 한4군(漢四郡)은 변조선 자치4군을 날조한 것이고 한반도에 있었던 적이 없다.
8. 중국의 고대국가는 배달(倍達)과 조선(朝鮮)의 체후국(‘朝代名’ 國)일 뿐이다.
9. 조선의 후예국인 부여-고구려-백제-신라-가야 5국은 BC200년대에 대륙에서 건국하여 대륙과 한반도에 병존했다. 따라서 백제와 신라의 서진설/대륙진출설은 잘못이고, 백제가 멸망한 황산벌은 한반도가 아닌 안휘성 황산(黃山) 이다.
10. 일본은 가야와 백제일 뿐이고, 일본열도(대마도/구주/본주/북해도)는 왜(倭) 이전의 야요이(彌生)시대부터 조선이고, 간도는 왜가 청에 불법양도한 것(AD1909년)이다.

* 위서(僞書) 논란의 고서(古書).

규원사화와 한단고기(삼성기+북부여기++태백일사+단군세기로 구성) 및 단기고사를 두고 진서위서여부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책이 일러주는 우리의 고대사 모습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민족의 역사 시발점은 일만년 전으로 소급하고, 그 강역은 아시아 대륙 전부이고, 인류문명의 시원이 한민족에 있다.

AD1675년(숙종 1년) 북애노인이 쓴 **규원사화**는, 광복 직후에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이 서울의 한 책방에서 구입하여 귀중본으로 등록했고, 양주동 등의 학자들이 일제시대에 이미 필사본을 소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애노인은 한 산골에서 진역유기를 발견하여 참고했다고 했으며, 진역유기는 고려 초 발해 유민이 쓴 조대기를 토대로 한 것으로 전해 지며, 조대기 라는 책명도 세조 3년의 기록에 있는 것이다.

단기고사는 발해 시조인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이 발해글자로 편찬한 역사서로서 100년 뒤에 황조복(皇祚福)이 한자로 번역했다는데, 모두 전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AD1949년과 AD1959년에 나온 국한문본이다.

삼성기는 한인(桓仁)의 한국(桓國), 한웅(桓雄)의 배달국(倍達國) 그리고 단군왕검(檀君王儉)의 조선(朝鮮)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규원사화와 단기고사도 다른 사서에는 없는 (고)조선의 단군들과 치적이 기록되어 있어서 상고사 복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우리의 최고(最古) 역사서이며, 단군의 조선역사가 거의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배워 온 역사상식에 혼란을 일으킨 것이다.

세조실록에 AD1457년(세조 3년) 왕이 팔도관찰사에게 압수령을 내린 책들 중에 삼성기 이름이 등장하니, 조선초기까지 실제로 존재했던 책이다.

한단고기의 범례에 따르면, 삼성기는 신라의 안함로와 원중동이 썼고, 단군세기는 고려 말의 이암이 썼고, 북부여기는 고려 말의 범장이, 태백일사는 이암의 현손 이맥이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책들을 한권으로 엮은 사람이 평북 선천 출신 대중교도 계연수(桂延壽)였다. 그는 AD1911년 묘향산 단굴암에서 이 책을 필사했는데 독립운동가인 홍범도와 오동진이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AD1920년 계연수가 사망하면서 “한 간지(干支) 뒤에 발표하라”고 제자인 이유립에게 유언을 남겼다. 필사본 화랑세기가 공개되기 10년 전인 AD1979년에 한단고기는 영인본 형태로 세상에 등장했다. 왜인 가지마 노보루(鹿島昇)가 AD1982년 일본에서 번역본을 출간하여 역수입된 것이다.

세 책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1).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온 책이나 사실을 참고했다는 것,
- (2). 특정 종교의 색채가 밀바탕에 있고,
- (3). 모두가 20세기 이후에 출간되거나 알려졌다,
- (4). AD1980년대 이후 재야사학계의 중요한 논거가 되어, 사학계가 위서로 취급하고 있다.

한단고기는 책의 출처가 분명치 않고, 편찬후 공개되는데 70년이 걸렸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고, 책의 어휘가 근대 이후에 생긴 것이고, 한국과 배달국이 존재했다는 시기의 동아시아는 신석기시대이므로 국가와 문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위서라는 주장이다.

신석기시대라는 역사시대의 구분 자체가 잘 못된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발굴된 그 당시의 유적유물을 보고서도 국가도 문명도 부정하는 사학계의 태도는 자가당착일 뿐이다.

규원사화에 대하여 사학계는 위서로 보거나 또는 비록 숙종 때의 진본일지라도, 사료적인 가치보다 조선 후기 민족주의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고, 일부 내용이 성경의 창세기와 비슷하므로 위서라는 것이다.

단기고사는 근현대에 생긴 용어들로 이루어진 문장들이 있어서 재야사학자들도 당혹해 하는 부분이 있다.

한단고기와 단기고사를 진서로 보는 것으로, 단편적인 자구에 역메여 전부를 위작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홀달 단군 50년조에 나오는 오성취루(五星聚婁: 다섯개의 별이 28수의 열여섯번째 자리에 있는 누성/婁星에 모였다)”는 기록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천문학과가 추적한 결과, 기록보다 1년 뒤에 금성, 목성 등 5개의 행성이 한곳으로 모인 것이 확인되었고, 연개소문의 조부 이름이 자유(子遊)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AD1923년 중국 낙양에서 발견된 남생(연개소문의 아들)의 묘비에 처음 나타난 이름으로 책의 진가가 드러났다는 점 등이다.

천부경, 삼일신고, 부도지, 격암유록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있으나 언급은 해당란으로 넘긴다.

100-1-2. 일제의 한국사 말살/왜곡. Obliteration and falsification of Han/Korean history by Jap.

Zipangu(일제)가 한국 강점과 식민통치를 합리화 시키려는 악랄한 의도로,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우리역사를 말살 왜곡한 후에, 소위 [조선사] 35권의 학술적 뒷받침을 위한 식민사관을 날조하여 우리겨레에게 주입시켰고, 광복후에 일제의 역사말살 작업에 관여했던 일부 뉘 빠진 사학자들이 정점이 되어, 식민사관을 답습하고 후세에게 교육시켰기에, 우리상고사는 왜인의 함정에 빠져, 머리 없는 역사가 통설인양 정립되어 여태도 못 고치고 있는 것이다.

일제가 쓴 [조선사]에는 6국(삼국이 아님)시대 이전의 기록은 하나도 없다.

[삼국사기]에 있는 배달국도,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단군과 조선도 왜인이 도려내 버렸다.

조선의 후예국인 부여와 고구려/백제/신라/가야의 초기역사를 깡그리 지워버렸다. 관련학자들은 물론, 지도층 인사들과 온 국민 모두가 눈을 똑바로 떠야 한다.

왜의 1차 범죄는 첫번째 역사서([고사기]와 [일본서기])를 쓰면서 저질렀다.

본국 백제가 망한 후에 왜를 개척하고 지배한 백제인(도래인)들 스스로가, 왜의 선대를 날조하면서 가라/가야를 포함하여 백제/고구려/신라의 역사 즉, 자신들의 조상역사(그들의 조상역사이기 때문에 너무도 뚜렷하게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사서에는 가야/고구려/백제/신라에 관한 지나칠 정도로 자상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를 지우고 숨기고 조작하는 엄청난 고생을 하여, (본래는 왜인이 아니고 백제인이 한 것이지만) 제손으로 직접 썼으니, 왜의 황별(皇別), 신별(神別) 및 상반별(相伴別) 지배층이 1,335년 전에 1차로 우리역사를 날조하는 대죄를 범했다.

2차는 일본의 한국침략 의도에 따라, AD1898년 동경대의 시라토라(白鳥庫吉; 요놈의 피에도 백조 후손 Buryat의 Gmab3st는 들어 있구만 잡종이 되었나?)라는 짜숙이 군부의 사주로 [단군고(檀君考)]에서 ‘단군사적은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하여 가공의 선담을 만든 것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없다’고 하여 단군사를 하나의 신화로 결론지었다.

AD1910년 11월부터 AD1911년 12월까지 또 AD1926년 12월부터 AD1938년 3월까지 군경을 동원하여 전국에서 서적과 자료들을 수탈해 불태웠다.

AD1915년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조직하니, 그 목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구한 조선역사를 일본역사보다 짧게 만들고, 조선사를 조작하여 제역사에 편입시키고, 조선족의 족보를 말살하여 역사와 강역까지 통째로 저희나라에 영구히 편입시키려는 것이다.

白鳥庫吉한테서 [단군고]를 배운 해질무렵의 이무기(今西龍)가 조선사 편찬위원회(후일 조선사 편수회로 개편)에 파견되어, 경성제대 국사학과 교수로 활동하며, ‘단군의 조선민족과 한민족은 아무 연관도 없다’ 하고, 단군의 기록을 조선사에서 삭제하여 식민사관의 뿌리를 내렸고, 그의 후학들이 서울대학교의 전통으로 이어가게 한 것이다. 즉, AD1937년 편수회의 공작으로 이마니시가 쓴 [조선사] 35권에는 단군사는 흔적도 없이 제거됐고, 우리민족이 늘 외세의 지배를 받아온 노예족이라고 강조했으니, 우리민족의 항일광복의지를 잠재우고 일본의 영구점령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다.

편수회에 참여한 하수인 못난놈 이병도(斗溪 李丙燾; 해방후 진단(震檀)학회 회원으로 사학계를 주도했고, [한국사] 6권을 간행)와 신석호(申奭鎬)는, 광복후에도 일제의 식민사관을 계승하여, 단군사를 신화로 단정하고 철저히 단군과 조선을 부정하는 일제의 하이에나(Hyaena) 역할을 수행했다.

한민족의 바른역사를 계승하고자 진력한 박은식(朴殷植), 신채호(申采浩) 선생 등이 이역에서 순사했고, 민족사학자 정인보(鄭寅普), 안재홍(安在鴻), 손진태(孫晉泰) 선생들은 6.25 때 납북됐고, 최남선(崔南善) 선생도 피난중에 뇌일혈로 쓰러졌고, 왜의 마네깅(犬) 노릇만 한 병도는 서울대 또 석호는 고려대의 교수가 되어, 견제세력 없이 제맘대로 후진을 양성했고, ‘피깃 든 개(犬)’ 훈련 받은 제자들이 오늘의 한국교단을 점령하여 충실하게 월급 값(?)을 하고 있다. 그들의 수고 덕분에, 한민족의 찬란한 영광과 조상역사를 잃었고, 스스로 ‘엽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100-1-3. 한국사서의 연계. Linking of Han/Korean historical books

(1). 조선;

- a. 신지(神誌)의 [비사(秘詞)]; BC2180년 마가인 신지선인이 전해오던 녹도문을 개량하여 고유문자를 만들어 비사를 편찬했다.
[비사]에 ‘진단구변도국’(震檀九變圖局; 동국의 역대도읍이 아홉번 바뀔 것이라는 예언)을 썼다고 만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와 [대동운옥(大東韻玉)]의 주(註)에 전해지며, 본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
- b. 고결(高契)의 [배달유기(倍達留記)]; BC2181년 삼랑 을보록(乙普勒)이 만든 가림토(加臨土) 38자를 사용하여, BC1280년 고결이 쓴 역사서이나 전해지지 않는다.
 - * 선조 16년(AD1583)에 발굴된 평양 법수교(法首橋)의 비문, 육진(六鎭) 지방(세종 때 함경북도 지방)과 선춘(先春; 간도지방; 현 연길시; 세종 때의 조선영토) 밖 바위, 남해도 낭하리(郎河里) 암벽, 황해도 백악(白岳) 마한촌(馬韓村)의 석각비에 새겨진 문자는 가림토 문자로 추정된다.

(2). 고구려;

- a. 사관들의 [유기(留記)] 100권; 주몽~대무신왕(BC232~AD44)의 편찬(추정).
- b. **광개토경호대왕 비문**(AD414년경)과 중원고구려 비문(AD450년경).
- c. 이문진(李文眞)의 [신집(新集)] 5권; AD600.
- d. 대영홍(大英弘)의 [신지비사역술(新誌秘詞譯述)]; AD600 추정.
 - * 광개토경호대왕비와 중원고구려비는 역사서 이상의 중요한 고구려 역사를 기록한 바위책으로 귀중한 유적이다.

(3). 백제;

- a. 고흥(高興)의 [서기(書記)]; AD375.

(4). 신라;

- a. 박제상(朴提上; AD365~419)의 [부도지(符都誌)].
- b. 거칠부(居柒夫)의 [국사(國史)]; AD545.
- c. 안함로(安含老)의 [삼성기(三聖記)]; AD600. 한국과 배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한단고기]에 수록되어 전해옴.
- d. 김대문(金大問)의 [고승전(高僧傳)], [화랑세기(花郎世記)], [한산기(漢山記)], [선사(仙史)]; AD702~737.
- e. 최치원(崔致遠)의 [제왕연대역(帝王年代曆)]; AD890. 洪種國의 필사본이 전함.
- f. 안홍법사(安弘法師)의 [삼한고기(三韓古記)].
- g. 작자 미상의 [신라고기(新羅古記)], [신라고사(新羅古事)], [백제신선(百濟新選)]; 신라후기.

(5). 발해;

- a. 대야발(大野勃)의 [단기고사(檀寄古史)]; AD707년부터 13년간 두번 대불임국(동로마제국; **TURKEY**)을 왕래하여, 저자가 수집한 고구려 사료를 기초하여 AD719년에 편찬 완료한 것으로, AD1959년 복간본이 전해온다.
- b. 작자미상의 [조대기(朝代記)](조선의 역대단군 역사); 발해 멸망 시(AD926)에, 왕세자 대광현(大光顯)과 장군 신덕(申德) 등 유민이 고려에 귀화하면서 가지고 온 것으로, 이 암(AD1297~1363)의 [진단유기(震域遺記)] 3권의 저본이 되었다 ([동국통감], [규원사화]).

(6). 고려;

- a.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三國史記)] 50권; AD1145.

- b. 일연(一然)의 **[삼국유사(三國遺事)]** 9권; AD1285. 이계복(李繼福)이 AD1512년에 중간한 정덕본(正德本)이 전해온다.
- c.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帝王韻紀)]**; AD1287년, 칠언한시(七言漢詩)로 단군 조선 역사가 전함.
- d. 홍관(洪灌)의 **[편년통제(編年通載)]**와 **[속편년통제(續編年通載)]**; 예종(AD1105~1122).
- e. 김관의(金寬毅)의 **[편년통록(編年通錄)]**, **[왕대종록(王代宗錄)]**; 의종(AD1146~1170).
- f. 정가신(鄭可信)의 **[천추금경록(千秋金鏡錄)]**; 충열왕(AD1274~1308).
- g. 민책(閔責)의 **[세대편년절요(世代編年節要)]** 7권, **[본조편년강목(本朝編年綱目)]** 42권; 충선왕(AD1308~1313).
- h. 이인복(李仁復), 이색(李穡)의 **[본조금경록(本朝金鏡錄)]**; 충선왕AD1308~1313).
- i. 작자미상 도학자들의 **[고조선 비사(秘史)]**, **[삼성밀기(三聖密記)]**; (조선 이전 역사), **[표훈천사(票訓天詞)]**; (조선의 이념과 사상), **[삼한습유기(三韓拾遺記)]**; 鹿頭處士, **[도증기(道證記)]**, **[지공기(誌公記)]**; (조선의 신지들이 남긴 기록), **[대변설(大辯說)]**; (조선건국 관련기록), **[동천록(動天錄)]**, **[지화록(地華錄)]**, **[통천록(通天錄)]**; (전통적 심신 수련법과 그역사), **[마슬록(摩虱錄)]**, **[수찬기소(修撰企所)]** 100여 권, **[호중록(壺中錄)]**, **[지이성모(智異聖母)]**, **[하사양훈(河沙良訓)]**, **[주남일사기(周南逸史記)]**, **[한도참기(韓道識記)]**; (도선/道詵) 등은 고려말 이전의 역사서.
 - 문태산(文泰山), 왕거인(王居人), 설업(薛業) 등의 **[삼인기록(三人記錄)]**.
 - 원동중(元董仲)의 **[삼성기(三聖記)]**.
 - 이 암(李 堉; AD1296~1363)의 **[단군세기(檀君世紀)]**; AD1363. 범장(范樟)의 **[북부여기(北夫餘紀)]**, **[가섭원부여기(迦葉原夫餘紀)]**; AD1363.
 - 이명(李荈)의 **[진역유기(震域遺記)]** 3권; 고려 말엽, 이명, 이암, 범장이 천보산(天寶山) 태소암(太素庵)에서 **[비기(秘記)]**를 발견함.

* **[조대기]**를 저본으로 하여 저술한 **[진역유기]**는, 6국 이전의 고대사가 기록된 것이고, 북애자(北崖子)의 **[규원사화(揆圓史話)]**의 저본이 되었다.

(7). 조선;

유교와 사대사상으로 국시에 반하는 사서([신지비사(神誌秘史)], [해동비록(海東秘錄)] 등과 도가사서)를 소각시켰고(AD1411, 1413), 세조, 예종, 성종(AD1457~1469) 때에 요서율(妖書律)을 내려 전국의 관민, 사찰, 암자, 고가에 소장된 (明보다 앞선) 우리 역사와 사상이 기록된 도서를 찾아 불태운 금서조치를 했다.

우리 고대사를 말살시킨 1급 하수인 今西龍이 지놈의 **[조선고사의 연구]**에서 ‘이조 **[태종왕조실록]** 12년조에 열거된 신비집, 고조선비사, 대변설, 주남일사기, 조대기, 지공기, 표훈천사, 삼성밀기, 삼성기, 도증기, 지이성모, 하사량훈, 삼인기록, 수찬기소 100권, 동천록, 마슬록, 통천록, 호중록, 지화록, 도선한도참기 등의 서적이, 고려시대에 서운관(書雲觀)을 중심으로하여 많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이런 서적들이, 고려시대부터 근세의 조선초기까지 구전되어 내려오는 단군고기에 연유하여, 도가(仙家)에 의하여 저술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줄 보냈는데, 지놈이 흠쳐서 숨긴 책명을 일일이 밝힌 결과가 되었고,

그런데 요자숙이 ‘앞에 열거한 도가사서는 지금 전하는 것이 없고, 다행히 **[단군고기]**는 보각일연(普覺一然)의 저서([삼국유사]) 만이 오직 남아있을 뿐이다’고 덧붙였으니, 왜놈들이 AD1916년 1월부터 AD1918년 12월까지의 사료 수탈기간 중에 약탈분서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만행을 시인한 것이다.

‘말’ 좋아 말 많은 놈 지폐에 당했다. 다언삭궁불여수중(多言數窮不如守中)도 몰라?

[한단고기(桓檀古記)]는 AD1911년 계연수(桂延壽)가 신라인 안함로와 원동중의 삼성기(한국과 배달국사), 고려인 이암의 단군세기(조선사), 고려인 범장의 북부여기(부여사) 및 조선 연산군 때 이맥/李陌의 태백일사(한국/신시/삼한/소도경전/고구려/대진/고려사)를 편찬한 것으로 민족정사의 대강을 담고있다.

북애노인(AD1675)의 [규원사화]는 [조대기], [고조선비기], [삼성밀기], [지공기], [삼한습유기], [진역유기] 등을 인용하여 저술한 것으로, 양주동(梁柱東)의 소장본을 손진태(孫晋泰)가 AD1940년에 전사한 것이 전해오며,

[삼국사기(AD1145)]나 [삼국유사(AD1285)] 보다 늦게 저술했지만,

- ① 두 사서 보다 먼저 저술했는데도 [삼국사기]가 인용치 않은 [조대기(AD926년)]와 [고조선비기(AD1200)], [삼성밀기(AD1200)], [지공기(AD1200)], [삼한습유기(AD1200)], [진역유기 3권(AD1297~1363)] 등 고려중엽에 저술된 우리사서 9종을 원용했고,
- ② [조대기]를 저본으로 한 [진역유기(삼국유사와 대등한 시기의 저술임)]를 저본으로 했기 때문에, 문헌고증적근거가 분명하고,
- ③ [삼국유사]가 인용했다는 [위서(魏書)]가 분명치 않으며,
- ④ 중국 고대사서인 [설원(說苑)], [죽서기년(竹書紀年)], [후한서(後漢書)] 등 34종의 사서와 부합하며,
- ⑤ [한단고기]의 삼성기(AD600)와 단기고사(AD719)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내용면에서 단군조선사와 우리 고대사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본다.

100-1-4. **한민족 정사 되찾기; 상실된 뿌리역사의 복원.**

Restoration of the lost/real history.

이책의 목표는 한민족사의 복원이며 한민족사 전체를 세밀하게 망라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로는 이책은 교과서가 아니지만 한민족의 정사이기를 주창하고, 이에 대하여 나는 확신범이다.

한민족사 복원의 주된 내용은,

- (1). **한민족의 뿌리/이동/계통** 확인과 **한민족 역사시대의 소급**;
한-배달-조선-부여-고구려/백제/가야/신라/발해-고려-조선.
- (2). **한민족의 세 갈래**와 **한-배달-조선** 및 **강원계 제후국의 계통** 확인 (강원계의 초기역사)과 수밀이계 한민족의 역사 검토.
- (3). **소위 단군신화의 올바른 해석**; 제천/천부경/천지인 삼신사상과 선통/봉선례.
- (4). **후기한국, 배달, (단군)조선의 실존과 역사 인정**; 암각화/고인돌과 별자리 그림, 산성, 청동문화, 고유문자 **가림토**와 소위 ‘한자’ 검토.
- (5). **기자조선과 동래설의 시정**; **서우여의 변조선**.
- (6). **위만조선과 한사군설의 시정**; **변조선의 자치4군**.
- (7). **조선의 강역과 제후국 및 ‘조대명’국**.
- (8). 상실된 **부여/고구려/백제/신라/가야의 초기역사 복원** (건국기원의 소급과 역년수정), 대륙에서의 건국 및 천도와 대륙과 한반도에 연방제국가로 병존.
- (9). (단군)조선과 부여/고구려/백제/신라/가야의 천도와 강역 확인과 복원.
- (10). **백제와 신라의 서진설 시정**.
- (11). **왜인들의 악질적인 날조**와 우리 사학계의 잘못된 **바**를 시정하는 것이다;
 - ㉠ 왜곡된 유럽중심주의 세계사의 시정,
 - ㉡ 인류 5대문명과 **한국-배달-조선(韓培朝) 문명**,
 - ㉢ 청동/철기시대의 소급과 철이 대륙에서 한반도로 유입됐다는 주장의 시정,
 - ㉣ 고대 인명/국명/지명의 시대별 확인,
 - ㉤ 소위 漢字는 ‘**韓字(桓字; Han Character)**’,
 - ㉥ 소위 ‘**원삼국시대**’의 시정과 불교전래시기 소급,
 - ㉦ **가야/백제/고구려/신라의 왜 개척과 또 다른 백제인 일본**,
 - ㉧ **임나일본부설의 날조**,
 - ㉨ **간도, 대마도, 독도는 한민족의 영토**.
 - ㉩ 한민족 고대사의 무대는 아시아 대륙.
 - ㉪ 기타.

비록 저들이 한술 더 뜬 사실에 대한 반성은 없지만, 맛이 되돌아온 吾鄉淸彦의
옳은 판단 한마디 들어보자;

‘사마천의 [사기] 25권은 **단군조선이 중원을 지배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마치 중국이 단군조선을 지배한 것처럼 힘겹게 변조작업을 해놓은
것이다. 한나라의 漢이라는 국호 자체도 옛날 3한조선의 韓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빌려간 것에 불과하다’ .

‘ 산둥반도에서 남한 넓이 만한 광대한 지역에 이르는 **대문구(大汶口) 문명권**을 발견
했는데, 이곳을 발굴하니 **문자**가 나오고 少昊氏라는 통치자의 이름까지 나왔으며,
이것은 방사선 탄소측정을 해보니 지금부터 **5,785년 전**의 것이다’ 는 중국 고고학자
당란(唐蘭)의 발표(AD1977. 7. 14 광명일보)가 있었다.

이것이 ‘**붉은악마**’의 정신인 **배달국 치우천황**시대의 **녹도문**이며 **용산문명**으로서
배달-조선 문명이다. 본서 200-4-A 및 B, 300-6-3-3 참조.

100-2. **한민족(桓; 韓; HAN/KOREAN)**; 본서 300-8-5 참조.

- ㉠ 한계 한민족(桓/韓/肅慎/濊貊/倍達/九黎/夫餘; Han-Korean).
- ㉡ 강원계 한민족(羌嫫/支那/漢; Kangwon-Korean).
- ㉢ 수밀이계 한민족(須密爾/虞婁; Sumer-Korean).

같은 혈통의 사람들이 같은 생활터전에서 동일한 역사의 흐름(문화와 풍속)을 이어오는 공동체인 ‘한겨레/한민족’(BC8936년의 후기한국 기준)을, 고대사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세가지로 구분한다(표지지도 참조).

- (1). 한국(桓國) 이래로 중국 대륙과 몽골-만주-한반도를 중심으로 살아온 주민을 주류인 한계(韓系/肅慎/濊貊/倍達/九黎/朝鮮/夫餘) 한민족(Han-Korean)이라 하고,

예맥; 예(濊/穢)는 농사짓는 민족을 의미하고, 맥(貊/陌)은 호랑이나 표범 꼬리를 몸에 달고 다닌 것에 유래한 말이며, 예맥족은 Baikal/Althai/Mongol 에서

- ㉠ 일부는 만주-중국 동부-한반도로 이동하고, ㉡ 또다른 일부는 서역-중앙아-Caspy 해-흑해로 이동한 한계 한민족인데, 우리말 ‘옛날’은 ‘濊의 날’이고, ‘고리적’은 ‘九黎시절’로써 ‘**옛날 옛적**’ 또는 ‘**옛날 고리적**’의 원류가 ‘예’이다.

- (2). 고대 복희씨(伏羲氏)의 강원국(羌嫫; BC3500년경 배달국의 제후국 임) 이래로 중국대륙 중서부에 주로 살아온 주민을 강원계(羌嫫系/支那/漢) 한민족(Kangwon-Korean) 이라고 칭하며(단, ‘화하족/華夏族’이 아님),

* 중국측이 자신을 ‘**지나/支那/China**’로 표기하니, ‘(배달국의) 겹가지 나라’ 또는 ‘(배달국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임을 뜻하여 역사사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 같은 발음으로 인한 **한(韓)**과 **한(漢)**의 혼동을 피하려고 태초부터 등장하는 ‘**한(桓/韓)**’을 그대로 두고, 복희(강원국)의 후예를 ‘**강원**’으로 한다.

- (3). BC8000년경 이래로 중앙 아시아-지중해-인도-아프리카 지역으로 진출한 주민을 수밀이계(須密爾系/虞婁) 한민족(Sumer-Korean) 이라 칭한다.

* ‘**桓**’은 ‘하늘/넓은/큰/높은/왕/최고 지도자’의 뜻이 있고, 순수한 우리의 소리말인 ‘하늘’의 준말인 ‘**한**’을 소위 한문자로 표현한 것이 **桓/韓/汗/天**이다.
‘하늘(天)과 한(桓)은 같다; 天曰桓’는 고어(古語)가 있고, [새우리말 큰사전]에 ‘**한은 환의 옛 글자**’이고, ‘**桓은韓의 正字**’라 했으며, ‘하느님’은 한민족 고유의 신칭이므로 ‘**한**’이라 읽는다. 한국(桓國), 하느님/한님(桓仁/桓因), [한단고기(桓檀古記)]도 같다.

성경에서 전지전능한 창조주 ‘Jehovah’는 하느님(Catholic)과 하나님(Christian)이라 부른다.

* Heradotus가 한민족인 고대 아시아인을 ‘Mongoloid/Mongolian’이라 이름지었다.

* **민족**이라는 단어도 명치 때에 일본인들이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AD1908년 단재 신채호의 [독사신론(讀史新論)]에 처음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민족’, ‘민족국가’ 및 ‘국적’ 개념을 고대사에 그대로 대입 적용할 수는 없다.

한국-배달-조선-부여-고구려/백제/신라/가야에 이르기까지의 건국주체가 동일한 혈통의 후예(단일민족; ‘순수’의 의미는 아니다)이며, 선대역사의 흐름을 유지해 온 한민족은 인류사에서 가장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를 가장 오래 지녀오고 있다.

우리 한민족(Han/Korean/Mongoloid)은,

- ㉠ 한국시대에 Baikal-Althai-Mongol을 기반으로 하여 한민족(桓/韓/Han/肅慎/濊貊; 倍達/九黎/夫餘/濊/鬱/우루/虞婁/우리/Ur/수밀이/須密爾/Sumer)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병하기가 되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해서, 그대로 머물기도 하고 대개는 남진하는 민족이동이 시작되었다.
- ㉡ 배달(청구/신시/구려)시대에는,
① 일부가 Pamir-서역-중앙아-지중해-Africa와 인도로 이동하고(Sumer/Ur/Indus),
② 일부는 Asia의 중앙/동북으로 이동하고(倍達/九黎/Kooryo→Korean/Mongoloid),
③ 오늘날 중국인(Chinese)의 조상이 된 복희가 배달국에서 분가해 나가 대륙의 중서부(현 청해)에 자리하게(媯嫫/Kangwon/支那/Chinese/漢) 되었다.
- ㉢ 조선에 이르러 배달 때에 흩어졌던 겨레를 재통합 했으니(朝鮮/韓; Josun/Han),
① 고향 땅 밤골(BAM; Baikal-Altai-Mongol)에 머문 몽골(Han/Mongol/Buryat),
② Mesopotamia와 Indus에 흩어진 수밀이계(Sumer/Ur; Aryan/Amori/Elam/Ubaid/Sam), 흑해와 Caspy 해 주위의 예맥(濊貊)과 그 후예인 말갈(靺鞨),
③ 서역 지역의 Turuk/Uighur/Scythai/Hun/Fururi,
④ Asia 대륙 중서부의 강원/한/풍(羌媛/漢/風; Kangwon/Chinese/Huns),
⑤ Asia 대륙 동북과 중앙아의
(ㄱ) 동호/선비/거란(東胡/鮮卑/契丹; Tunghus),
(ㄴ) 예맥/배달/구려/부여/고구려(濊貊/倍達/九黎/夫餘/Fururi/高句麗/Kokuryo-Korea-邑婁/滿洲),
⑥ Asia 대륙 동부/동남아/동북아의 조선/한(朝鮮/韓; Josun/Han) 이다.
- ㉣ 조선후기에 부여와 고구려/백제/신라/가야가 병립하다가, 고구려의 재통합과 수/당과의 70년간 전쟁, 가야가 왜국으로 민족 대이동하고, 본국 백제의 멸망과 일본 백제의 독립, 신라의 남부통일과 발해의 북부 고구려 고토회복(남북국시대)으로 연결된다.

* 김산호 선생도 한민족을 구분해서(① 원주 토착인인 감(熊)족, ② 천산 주신(虎)족, ③ 알타이 부여족, ④ 훈족)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여, 본서와 우리민족의 갈래에 대한 대강은 같지만 민족의 발상지와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다르다.

* 朝鮮은 발음은 ‘주신’이고, 뜻은 ‘주신(珠申)의 관경(管境)’으로 풀이되고(신채호), 사서에는 우리조상들의 영역을 주신(朝鮮)이라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옛 주신(古朝鮮) 이전에 소위 한문자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주신; 肅慎; 배달민족이 사는 온누리’이라는 나라와 민족이름이 존재했었고, 소리말을 뜻글인 한자로 표기한 것이 肅慎, 朝鮮, 朱申, 朱里眞이다.

이에 비하여 현재의 중국은 한족(漢族) 등 55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며, 중국인은 전통적으로 화이론(華夷論; 중원 왕조만 중화국이고, 주변국은 모두를 이적국/夷狄國 이라는 것)에 입각하여 역사를 인식한다. 결국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과 중국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를 중국역사로 설정한 것이다.

AD1949년 중국정부수립 이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다민족국가’를 과거속에 투영하여, 가공의 중국사를 서술하는 고위금용(古爲今用; 과거역사가 현재를 위하여 자의적으로 활용됨)을 주장하니, 이는 역사왜곡의 극치 이다. 본서 200-2-4 참조.

사서에 의하면 4,363년(BC2358 기준) 또는 4,338년(BC2333 기준) 전에 2,250년간(BC2358~BC108) 또는 2,225년간(BC2333~BC108) 존속했던 조선인데, 신화라고 하며 무시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본서 300-6-1-1 참조).

UR와 SUMER의 역사는, 전기대홍수 이후만 해도 BC3300년 또는 BC2800년으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Mesopotamia에 남긴 그들의 문자는 BC3500년대의 이야기로 소급된다.

사회를 형성하고 조직을 갖추고 문화를 발전시켜 온 것 그 자체가 역사 이다.

실은 국가와 건국을 역사의 출발로 인식해서는 안되고, 민족사의 시작은 국가와는 무관하되 통상적으로 어떤 국가와 연계해서 이해된다.

다른 어떤 민족 보다 더 오래된 많은 기록과 유적이 있고, 갑골문자로 상징되는 조선의 제후국인 상/은은 실재를 인정하면서, 동시대의 상국인 조선([서경] 虞書는 조선을 상국이라 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

왜인의 우리 고대사 말살술책 때문이다.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후손인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우리역사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고쳐야 한다.

이동과 정복과정에 현지를 통치하기 위한 인원의 주둔과 잔류를 통하여, 지배계층의 문명은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질적인 것도 있지만, 같은 종족이 만든 삶은 공통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교류와 때로는 전쟁으로 인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인종별 지역별 문화의 특수성은 그 원형을 보존하기 어려워진다.

배달과 조선시대에, 배달과 조선의 제후국인 강원계는 수십개의 국가가 흥망을 거듭했는데, 조선의 후국이었던 초기의 하(夏; BC2224~1766)와 상/은(商/殷; BC1766~1115), 주(周; BC1115~295)가 오래 존속한 나라지만 모두 820년 미만이고, 진(秦)이 45년간을 유지하는 등 모두가 단명했음에 비하여, 한국과 배달은 물론이고 조선은 장구한 2,225년 (또는 2,250년) 동안을 존속했던 인류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기록은 한민족이 강력한 대제국을 가장 오랫동안 영위했고 또 그럴 능력이 있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인류통치사의 거대한 자취인 것이다.

자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또는 알면서도, 또는 저들만 역사를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무리들이, 이시대에 우리역사를 제멋대로 요리하고 있음이 서글프다. 빨리 깨우치고 시정하고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급선무 이다.

100-3. 역사시대를 앞당기는 배달-조선 문명(倍達朝鮮文明)과 인류 5대문명,
6국시대의 실종된 역사복원.

Baedal-Josun culture advances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up to the 5 human cultures.

현대 인류문명의 기원시기는 기후와 환경이 급변하여 혼란했던 암흑의 선사시대
(대홍수시기인 약17,000년 전~7,000년 전) 이다.

전기대홍수 이전은 의문이나 그에 관한 기록(인도의 Veda 경전)도 있고, 유적이 발굴되고 있다. 문명기원의 자취로 인류최초의 정착생활, 구조적인 위계질서의 징표, 농작물 재배, 농업관련 발명, 벽돌이나 돌로 지은 건물과 성곽 등의 구조물이 남아있다.

전기대홍수 이후의 고대문명은 기후가 좋은 큰 강가에서 일어났다.

홍수는 재난에 대비하는 다양한 문화를 낳았고, 비옥한 토질은 집단정착의 초석이 되어, 의사소통이 활발해져서 언어가 발달하고, 협동과 단결이 요구되고, 그 결과로 통치조직이 형성되면서 중앙집권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류문명 발상의 필요조건으로 다음사항이 갖추어 져야 한다고 본다.

- ① 시대적으로 앞서야 하고,
- ② 서식터전으로서 온화한 기후의 큰 강 유역에(대홍수이전에는 그렇지 않음) 주거유적이 있어야 하고,
- ③ 인골 등 주인공의 흔적이 있어야 하고,
- ④ 토기, 석기, 청동기, 철기 등의 생활도구가 유물로 남겨져야 하고,
- ⑤ 무덤과 제단 등의 종교/의식관련 유적이 있어야 하고,
- ⑥ 자연현상 및 천문현상을 관찰한 유적이 있어야 하고,
- ⑦ 조직/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근거로 건축, 성곽, 고분 등의 유적이 있고,
- ⑧ 칼, 거울, 금 세공품 등 통치자의 상징유물이 있어야 하고,
- ⑨ 집단 및 정착생활을 한 흔적이 있어야 하고,
- ⑩ 고유언어와 문자가 있어야 하고,
- ⑪ 그 문명이 파생전파 되어야 한다.

나는 본서에서,

- ①. 누락된 배달-조선 문명(Baedal-Josun Culture)을 밝히고,
- ②. 인류문명 발상시기를 수정(소급)하며, 유럽중심 세계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 ③. 청동기와 철기시대 및 역사시대를 소급하며,
- ④. BC8000년경의 수밀이계 이동과, BC3500년경 복희씨가 배달국에서 나와, 중국의 시조가 된 때부터 계속된 한민족 대이동역사의 흐름을 밝히고,
- ⑤. 배달과 단군 조선의 실재(實在)를 밝히고,
- ⑥. 진(秦) 이전의 중국역사가 없음(조대명국일 뿐)을 밝히고,
- ⑦. 한민족 국가의 기원과 강역의 대강을 재정립하고,
- ⑧. 조선후기부터 6국의 발흥기까지 Sumer계와 Indus계 역사를 한민족사의 일부로 되찾아, 우리사서에서 상실된 역사를 회복코자 시도하고,
- ⑨. 3국이 아닌 **6국시대**(부여/고구려/백제/신라/가야와 **왜**를 포함할 때)를 정의하여,

BC600~BC300년경부터 AD300~AD700년경까지의, 우리역사 복원을 시도한다.

솔직해 지자면 두렵다. 수백수천권의 사서를 읽었다거나, 발굴된 유물을 모조리 파악해서 완벽하기 때문에, 고치고 붙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로 보완해야 할 것임도 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왜놈들과 그 톨만인들이 망가트린 우리역사의 즐거리와 뿌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결가지와 새잎이 가치 없어서 버리자는 것도 아니다.
근본을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민족의 고대사(머리)를, 본래 있었던 그대로 되찾아 세우는 것이다.

선인들이 지은 [고기(古記)]는 물론 [삼국사기(AD1145)]나 [삼국유사(AD1285)]외에, 수많은 사서들을 ① 우리선조가 지었다는 까닭으로 무시하고, 중국이나 일본의 사서만을 중시하거나, ② 정사(이마니시라는 독사의 날조/조작된 [조선사]만을 정사라 하고,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조차도 눈치채지 못하는 개새끼(畜生)보다 못한 일부학자들의 기준)에 없는 내용이나 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③ [삼국사기]보다 더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찬사서가 아니라는 저들만의 잣대로, ‘신빙성이 없는 위작’ 이라고 단정하는 작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 태도가, 사서 저자들이 중국(근세 조선 때의 明 등)의 눈치를 보며, 역사서를 써야 했던 이유 그 자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중국 대륙과 만주, 일본 그리고 중앙 아시아에서의 우리민족의 엄연한 역사사실을, 무슨 근거로 아니라 부정할 수 있는가?

꼭 써야 하나 어찌할 수 없이 빼어 버리거나

은유법으로 표현한 것도 많은데, 그것을 바르게 찾아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얼버무리는 사학계와 교단을 두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눈앞에 펼쳐 줘도 아니라고만 하면,

그들은 우리역사에 관해서는 자리를 즉시 떠나야 한다.

사람이 꿈과 결혼한 것으로 알아듣고, 단군이 1,900년 간을 살고 산신이 된 것으로 새겨 듣는 그런 자들이, 역사를 들먹이니 정녕 조상님께 부끄러울 뿐이다.

우리조상의 유적은 한반도 안에서가 아닌, 조상들의 실제 생활터전(현재의 중국과 아시아 전역)에서 찾아야 하고,
그 강역은 우리가 배워온 범위를 훨씬 초월한다.

민족의 거듭된 대이동은 도읍을 여러 차례 옮기고, 문화 또한 널리 펼치는 결과를 이룬 것이다.

지금의 잘못 된 역사책은 고쳐야 한다. 본서 100-6 및 200-4 참조.

* 1. 역사상 한민족/한국의 영역. Historical boundary of Han/Korean.



* 한민족의 발상지는 밤골(Baikal-Altai-Mongol-Pamir) 이고, 역사상 한민족의 강역은 유사 이래 한반도가 아닌 **아시아대륙 전체**였고(지도상의 **Sumer-Korean**은 ‘한국에 포함되는 Mesopotamia 지역’을 의미함), 강원계가 현재의 중국 대륙을 점유했던 것은 1,000여년 전일 뿐이다.

- 100-4. 유적의 중요성/**고인돌 문명**; 고인돌은 한-배달-조선의 모습. 본서 300-6-5-3 참조.
Importance of historic remains; **Goindol Culture**(BC5000~BC1000);
Baedal-Josun Goindol reflects the actual and real circumstances of the day.

A dolmen generally refers to Neolithic tomb consisting of two or more stones with a capstone.
In Gochang County, 2,000 Goindol (dolmen) are found at more than 85 locations. This is the densest concentration of dolmen both in Korea and the world and is an important source for understanding ancestral rites held during the Earlier and/or the Bronze Age in Korea, as well as interpreting the general thoughts and culture of the people of that period(Han-Baedal-Josun).

고대 PHOENICIA의 해양도시인 Sidon(현재 LEBANON의 Saida 시)출신 탐험가 Antipatros가, BC266년에 항해에 나서서 찾은 인류문화 중에서, 다음 7가지를 7대 불가사의(7 wonders in the world) 라 명명했다.

- ① EGYPT의 Khufu(BC2575~BC2465; Egypt 4왕조 2대왕)의 대 Pyramid (2.5 ton 거석 250만개 소요),
- ② TURKEY의 Artemis 신전(BC600),
- ③ GREECE(옛 이름 HELLAS)의 Zeus 신전과 신상(BC500),
- ④ BABYLONIA(BC2300경의 Mesopotamia의 왕국; 현 IRAN Baghdad 남쪽)의 공중 정원; 30층 건물 높이의 계단식 정원,
- ⑤ GREECE의 Hallicarnasos의 Mauros 왕릉(BC400),
- ⑥ Rhodoe 항구의 청동 거상(BC300; 36 m 높이에 양다리는 항구 양편에 걸침),
- ⑦ EGYPT의 Alexandria시의 Paros 등대(BC300; 높이가 135 m인 꼭대기에 12 ton 의 Isis 여인상이 얹혀 있음. AD1303년 8월 8일의 지진으로 파손된 잔해를 AD1998년 장-이브 앙프뢰르/Empereur, Jean-Yves가 해저 유적에서 발견함).

대 Pyramid 만 현존하고, 그외 6가지는 기록과 전설로 남은 채 중세 이전에 자취없이 멸실되었다가 근래에 흔적을 다시 찾은 것들 이다.

더 먼 옛날 70,000년 전(남아프리카공화국의 동굴) 또는 40,000년 이전(인도의 만다르 동굴벽화)의 암각화나 고인돌을 위시하여, BC3300년으로 소급하는 Europe의 Dolmen, Menhil, Stone Circle 이라는 거석들과, BC2500년대의 FRANCE나 SPAIN 등지의 수많은 동굴문화들, 같은 무렵 또는 앞선 시기의 암각화(울산, 고령 등), 고인돌과 지석묘가 눈과 손으로 감지되는 고대문화 이다.

UNESCO가 세계문화유산(Sites of the World Culture)으로 지정한(AD2000. 11.), 약54,000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고인돌(Baedal-Josun Goindol)**은, 전세계 고인돌 총량의 50%를 넘는다고 하며, 한국-배달-조선의 고유문화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장품이 출토되고 있다. 고인돌은 만주, 한반도, 중국 동부,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인도 남부와 스리랑카로 이어지며, 쌀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옛 한국-배달-조선의 강역과도 무관하지 않은 점을 알아야 한다. 본서 200-5-2, 300-6-5-3 참조.

BC3500년대의 Astonia(현 TURKEY)와 Aegea 해 지역의 Troy 문명, BC3000~BC2500 년대의 Aegea 문명, Minoa 문명(Creta 섬의 Knossos 궁전과 선상B문자), EGYPT의 Ramses 왕(BC1301~BC1234), Illyad와 Odysay, Aesop(BC700)의 우화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Mesopotamia 지역의 UR와 SUMER 왕국이 남긴 청동기 문명과 그들의 문자(BC3300~BC2600), AKKAD 왕국의 Sargon 왕과 Naramusin 왕의 전승 유물(BC2350), BABYLONIA 왕국의 Hamurabi 왕과 그 법전(BC1728), Bible에 나오는 David 왕(BC1004)과 Solomon 왕(BC932), PHOENICIA 왕국의 Carthago 시(BC814), Tyre 시와 Sidon 시 건설(BC815), Fururi(부여/훈/풍)족과 Scythai(흉노/돌궐)족의 이동역사, Greece 문명이 낳은 Thales(BC624), Heradotus(BC500), Pythagoras(BC460), Herodotus(BC485~BC425), Socrates(BC469), Platon(BC370)과, Persia 전쟁(BC500), Marathon 전쟁(BC490), 그리고 Aristoteles(BC384)와 Alexander (BC336)의 이야기는 불과 몇년전 일처럼 느껴진다.

우리의 직계조상들의 자취는 어떠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다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직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결코 없는 것 이거나 거짓이 아니다.

Mesopotamia 문명의 보고인 IRAQ가 전화를 꺾었다.

인류문명의 젖줄 Euphrates와 Tigris가 소용돌이 치고,

약7,000년 전 인류최초의 도시인 Ur(당시 왕들의 무덤이 산재해 있고,

웅대한 Ziggurat와 4,000년 전의 사원들이 있음)와 Sumer와 Nippur(최초의 건축물과,

Sumer 어로 된 5만장 이상의 점토판 발굴)가,

5,000년 이래 최대의 고비를 넘겼는데.....

그곳은 한국(桓國)을 떠나 서진해 간 나의 삼촌네 마을이다.

100-5. **한민족의 터전; 중국/아시아가 우리의 앞뜰과 뒷동산.**

Our yards and hills in whole Asia/China.

① **요녕/홍산(遼寧/紅山) 문명**; BC6150~BC2000.

- ① 흥륭와(興隆窪) 문명; BC6150~BC5350; 내몽골 오향기.
- ② 신락(新樂) 문명; BC5500; 요녕성 심양.
- ③ 홍산(紅山) 문명; BC4800~BC2200; 내몽골 적봉 동북 홍산/665 m.
- ④ 남경 유적; BC4000; 벼/조/콩/수수/기장(농경정착생활),
- ⑤ 남상근 유적; 비파형 동검과 인골; 요녕 조양.
- ⑥ 우하량(牛河梁) 문명; BC3500; 요녕성 능원 우하량.
- ⑦ 사해(查海) 문명; 요녕성 부신.
- ⑧ 소하연(小河沿) 문명; BC2900; 내몽골 적봉시 오향기의 소하연향.
- ⑨ 하가점하층(夏家店下層) 문명; BC2400; 내몽골 적봉 동북 노합하.
- ⑩ 대전자 유적; BC2000; 지가영자 산성과 토성, 집단무덤 1100여 기; 적봉 서북.
- ⑪ 소주산(素珠山) 문명; 요녕성 대련반도.
- ⑫ 서단산(西丹山) 문명; 길림성 길림.
- ⑬ 좌가산(左家山) 문명; 길림성 장춘.

② **대동강/평양(大同江/平壤) 문명**; BC4600~BC500; 한반도 대동강 일원 외.

- ① 평양 상원군 용곡리 4호 고인돌; BC4539±167의 인골과 비파형 창끝/청동단추.
- ② 평남 덕천군 남양유적 16호; BC3800.
- ③ 평양 성원군 백원리 9호 고인돌 BC3368±522.
- ④ 평남 강동군 송석리 1호 석관무덤; BC3104±179의 쇠거울(저탄소강).
- ⑤ 평양 상원군 번동 2호 고인돌 BC3000의 별 그림.
- ⑥ 평양 성천군 용산리 순장 고인돌; BC3000의 청동기(인골은 BC5069±426).
- ⑦ 평양 황대성 산성과 고인돌; BC3000.
- ⑧ 평양 상원군 장리 1호 고인돌; BC3000; 청동방울, 2인 교예 장식품.
- ⑨ 평남 증산군 용덕리 외새산 10호 고인돌; BC2926±741의 질그릇과 별 그림.
- ⑩ 전남 영암군 장천리 주거유적; BC2635.
- ⑪ 평양 평원군 원하리 고인돌; BC2500의 별 그림.
- ⑫ 충북 청원군 문의면 가호리 아득이 마을 고인돌과 별 그림; BC500.

③ **양소(仰韶) 문명**; BC4000~BC1700; 황하중상류(서안~낙양 간 위하 일원).

- ① 이리두(二里頭) 문명; BC2080~BC1500; 황하중상류(위하); 강원계 청동유물.
- ② 마가요(馬家窯) 문명; BC2200~BC1800; 황하상류(감숙/청해지역); 청동유물.

④ **용산/대문구(龍山/大汶口) 문명**; BC2800(BC3785)~BC1700.

- ① 대문구(大汶口) 문명; BC2,300(BC3785); 대문구(산동성 연주 동북).
- ② 용산(龍山) 문명; BC1700; 용산(산동성 제남).
- ③ 복점(卜占)과 죽간문(竹簡文); BC1700경; 황하하류.

⑤ **고인돌 문명**; BC5000~BC1000; 한반도, 만주, 중국 동부, 일본 일원.

학계에서 **고인돌 문명**과 대동강/평양 문명을 제외한 전체를 **동이(東夷) 문명**이라 하고, 또 양소와 용산 문명을 합하여 **황하(黃河) 문명**이라 칭하는데, 그 모두의 주인공은 **배달과 조선** 및 그 제후국인 강원계의 **‘조대명’국**(하/은/주)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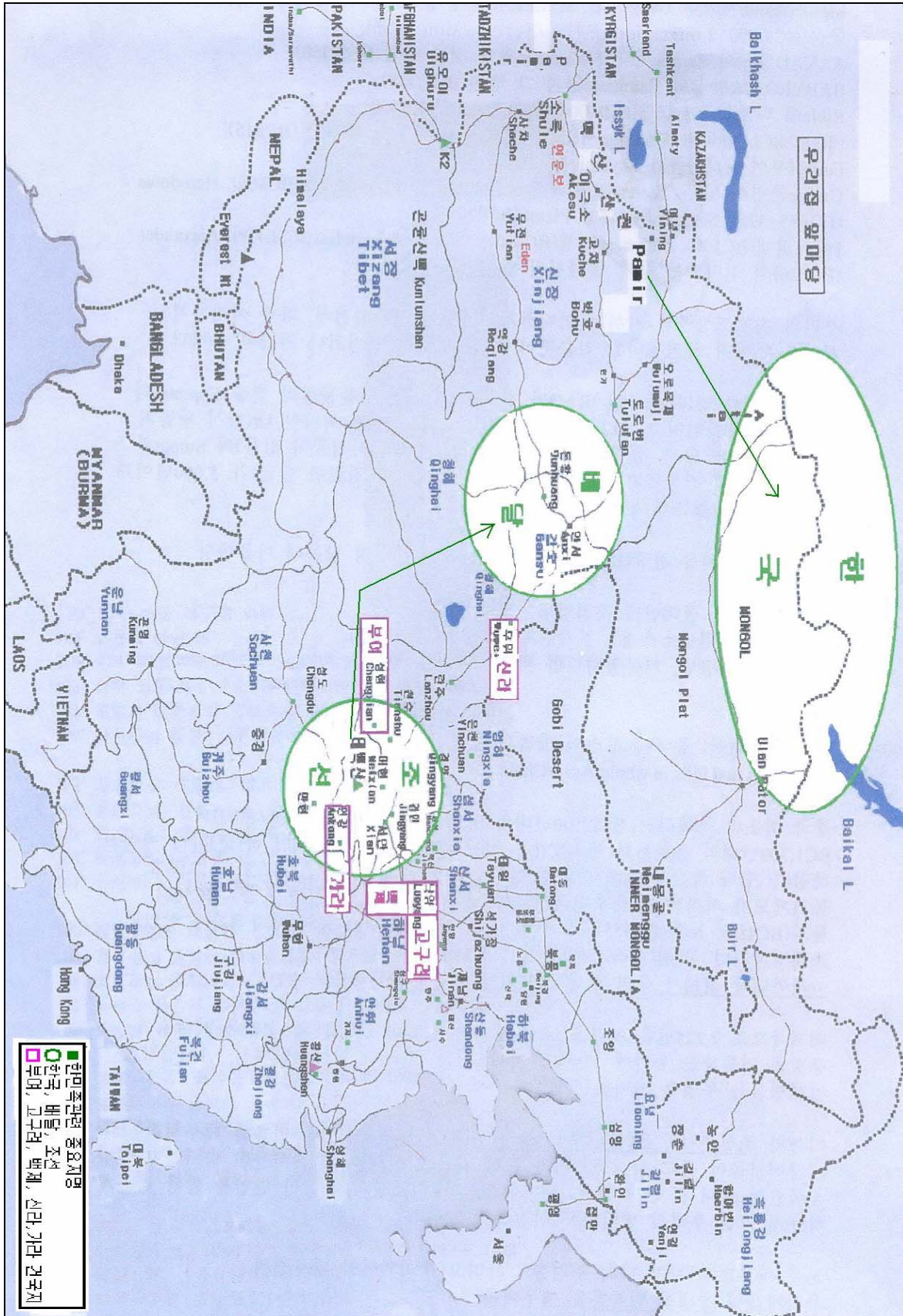
봉건제도가 시작되고 춘추전국시대가 낳은 동양사상의 원조인 공자(BC500), 목자(BC480), 장자(BC370), 노자(BC355), 맹자(BC289) 등 제자백가가 살았던 조대명 국가인 주(周)가 있던 그곳, 아시아 대륙 전체가 한겨레/한민족의 앞 뜰과 뒷 동산 이었다.

특히 만주지역은 애시당초부터 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중국이라는 국명으로 강원계에 넘어간 때까지 줄곧 우리 한민족의 터전이였다.

최초의 한국(桓國)과 밝달국(倍達國) 및 2,225년간의 대제국인 유신(朝鮮)은 물론이고, 강원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흥망을 거듭하는 동안에,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또한 약768년~1,173년간을 대륙과 한반도에서 건재했던 우리 역사를 잊지말라!

더욱이 조선은 하, 은(상), 주의 상국(上國)일 뿐만 아니라, 인류를 깨우쳐 준 제자백가들이 곧 ‘동이족’ 이라고 강원계의 고서들이 명기하고 있다. 중국만이 아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것이 우리조상의 유적 이다.

* 2. 우리집 앞 마당. Your yards and hills.



* 한국-백제-조선과 후예국의 위치표기는 초기의 중심지/도읍지 이고 전체강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00-6. 한민족(桓; Han/Korean/Mongoloid)의 상상을 초월하는 문화영역.

The origin and migration of Han/Korean/Mongoloid stand above your guess.

지구인류는 하나의 조상인 ‘하느님(한님; 桓仁/桓因)’의 후예라 생각된다.

* 우리말(소리글)을 한자(뜻글)로 표기하는 것은 음사(音寫)이상의 의미는 무시함.

인간은 처음부터 여러 곳에서 별도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의 소재로 같은 곳에서 생겨나, 이동하며 처해진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장구한 세월의 경과로 지금은 생김새도 말도 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조상의 후예로서 ‘한민족(桓/韓/하늘족/천손족; Great Han/Korean)’은 뿌리말인 ‘한국어(Han; Korean)’를 쓴다. 오늘날 생김(종족)과 말이 각기 다른 것은, 일흔번 (1,000×70≒70,000년) 가까운 개벽이 남겨놓은 흠집일 뿐 근본은 변함이 없다 (천부경 참조).

한민족(천손족; Great Han; 신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자손이다)은, 마고주신-유인씨-안과견 한님-거발한 한웅-왕검 단군(麻姑主神-有因氏-安巴堅 桓仁-巨發桓 桓雄-王儉 檀君)으로 이었다.

한민족의 정사를 살피면 오늘의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가(몽골/만주/동남아/일본 포함) 본래 한민족의 발상지며 관경이었음이 확인된다.

삼황오제가 동이 이고 요순과 하윤이 동이 인데 무슨말이 더 필요한가?

‘옛부터 구주와 대마도는 삼한이 다스린 땅으로 왜인이 살던 곳이 아니다; 自古仇州對馬島乃三韓分治之地 本非倭人世居地’고 한계와 강원계 사서가 공히 확실하게 밝힌다.

특히, 조선 때 까지는 물론이고, 부여/가야/백제/신라/고구려의 왜 개척기(BC230~AD670) 이래로, **대마도**는 섬돌로서, 신라 때는 경상도에 속했고, 고려 때는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시 경유지였으며, 조선 때는 옛부터 우리영토이나 물건너 섬이어서 래왕이 잦지 못했다는 태종의 교시도 있었고, 세종 조에 이종무 장군에 의한 왜구토벌로 왜구의 노략질이 종식되었고, 또 행정적으로 조선에 복속시키는 조치(현지인에게 관직부여)를 취하여 줄곧 조선의 영토였는데, AD1861년 명치 때부터 일본땅으로 둔갑해 버렸지만, 지금 그곳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일본말을 한 것은 고작 150년 정도에 불과하고, 애시당초부터 근세까지 대마도/구주/본주 모두가 한민족의 땅이다. 본서 200-1-3 참조.

일본인이 우리와 같은데 유독 ‘말’이 다른 것은 무슨 까닭일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 ‘일본말이란 실은 우리 고어 이고 약간 변형되었을 뿐이다’는 것이 그 답이다.

모든 포유동물은 FOXP2 라는 유전자가 있어서 소리를 내고, 약18만년 전에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인류만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약4만년 전의 수렵이나 어로생활도 그렇지만, 특히 무리지어 사는 집단농경생활(농사는 약25,000년 전에 시작)을 하면서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졌고, 언어는 지역별 집단별로 발전하여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파생된 것이다.

‘한; 하늘; 桓; 韓; Han’은 우리민족의 이름/말/땅/나라 이며, 정신이고 상징이다.

흑피옥(黑皮玉): 조선일보 기사(2009. 1.31.)

내몽골 자치주 우란차부시(烏蘭察布市) 화더현(化德縣) 다징거우(大井溝) 일대에서 김희용(金喜鏞)이 발굴했는데, 2006년 8월 22일 지하 2m 석실에서 전신인골과 31점의 흑피옥(黑皮玉; 검은 염료를 칠한 옥돌 조각상)이 네줄로 정렬되어 있었고, 인골의 발 아래에는 62cm의 태양신 조각이 잇었으며, 근처에는 신전의 흔적과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지대석(址臺石)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수집품은 520점으로 반인반수(半人半獸) 모습의 조각상들로 모두 검은 염료가 칠해진 것이며, 남녀의 성기 등이 과장표현되고 성생활을 직접 표현한 것들도 있다.

AD2007년 11월에 의뢰받은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의 연대측정결과는 14,300+ -60년 이라 한다.

- a. 발굴지인 화더현은 누위얼후산(努魯兒虎山) 일원에 걸친 한민족의 요녕/홍산문명(BC6150-BC2000) 지대로써, 이곳은 배달국의 중심지역 이었고, 인근의 조양(朝陽)은 조선이 도읍을 천도했던 곳이고 또 요하일대는 고구려의 다물정신이 집적된 곳이다. 본서 100-5, 100-6 참조.
- b. 연대측정결과인 14,300년 전은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후기한국(BC8936-BC3898)과 배달국(BC3898-BC2333) 시대이다.
- c. 한국-배달-조선-고구려까지 즉, AD700년대 까지 줄곧 한민족이 살아왔던 터전인 것이다.

따라서 흑피옥은 중화인이 아닌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그들의 생활근거지에 남겨놓은 고귀한 유물인 것이다.

요녕/홍산문명의 더 많은 발굴과 발굴된 상형문자 등이 해독되면, 한민족의 상고대 역사는 신화가 아닌 현실로 인정될 것이다.

100-6-1. 발원;

우리사서는 “사백력(斯白力; 시베리아?) 하늘 아래 ‘하느님 나라; 하늘 나라; 한국; 恒國/韓國’이 있었다” 했는데, 언어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약70,000년 전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Asia와 Ural과 Altai를 지적했다.

Finland의 언어학자 G. J. Ramstedt가, 오늘의 한국어를 Altaier족으로 분류해서 한국어는 Ural-Altai 어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역사학의 태두인 Herodotus(BC500)는 인류사의 조상은 Asia 인 이라 하고 ‘Mongolia/Mongoloid’ 라는 이름을 붙였고,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를 이룬 사람이 ‘Phrygia/Frigia 인’ 이라 했다.

‘phry’는 불을 의미(Persia의 ‘pers’도 같다)하는데, 우리말 ‘불’의 연원인 ‘천손족’, ‘태양’, ‘부여(夫餘)’와 ‘부여인’을 전해들은 Herodotus가 ‘phry’와 ‘Phrygia’로 표기했으리라.

그런데 [한단고기-삼성기] 외에 의하면, 조국(肇國)인 ‘한국’이 약66,000년 전에 바이칼, 알타이, 몽골, 파밀고원에 있었다(이지역은 오늘날은 고원지대라서 일상생활이 어려우나 당시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것이 현대과학으로 밝혀짐). 그 후 지구역사상의 최근에 흑한기(20,000년전)와 해빙기(11,000년전)를 거치며 대홍수로 만물이 수몰되고, 대이동과 더불어 지금의 인류문명이 다시 시작되었다.

Altai/Althay(Baikal/Baykal 호수 서남의 Mongol 서단과 Russia 남단 및 중국 신강성 최북단 국경지역 일대)의 까라불 지역에서 45,000년 전의 세석기(細石器) 유적이 발굴되고, Siberia(Ural 산맥에서 Bering 해에 걸친 지역)의 나린 지역에서도 20,000년 전의 세석기 유적이 발굴되어, 동아시아의 현생인류 시원지가 Altai와 Baikal 지역으로 추정된다는 과학자들의 발표가 있다.

‘밤골(Baikal-Altai-Mongol)의 한국’에 대한 사서의 기록과 아시아인의 현생인류 시원지 (Baikal과 Altai)에 관한 이 발굴결과를 어떻게 일치하는가?

Baykal 호수의 침전물을 연구하는 Russia 연구소는, 고대에 사냥의 최적지였던 Siberia에 20,000년 전 흑한기가 와서 사람들이 따뜻한 지방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BC66,484년 이래(전기 한국시대)의 ‘한국사람(한민족)’이 고향(사백력; 시베리아/알타이/몽골)을 뒤에두고, 20,000년 전 흑한기에 온난한 곳으로 이동을 시작하여,

- ① BC8936년 무렵(후기 한국시대)을 정점으로, ㉠ 서역(신강성 서부와 천산산맥을 넘어 Kyrgyzstan/Tajikistan/Afghanistan 지역)으로 남서진하고, ㉡ 일부는 계속 서남진하여 Caspi 해-흑해-지중해-Africa까지, ㉢ 또 일부는 Astonia-Mesopotamia-India 까지 이동하고(Sumer계), ㉣ 일부는 밤골을 떠나 만주-한반도-일본열도까지 계속 남진(한계)하고,
- ② BC3520년경(배달국시대)에, ㉠ 감숙성 돈황지역(한계)과 ㉡ 청해지역(강원계)으로 남서진하고, 그중 일부는 Mesopotamia(Sumer계)까지 가서 먼저 온 형제와 합류했으며,
- ③ BC2333년 무렵에, ㉠ 중국 중부와 동부로 이동하고(강원계), ㉡ 섬서성 서안지역과 황하 중하류를 거쳐 난하/대능하/요하유역 및 만주와 한반도로 남동진했다(한계).

한민족의 이동역사 사실과 Baikal호 침전물의 비밀을 밝힌 과학 이야기가 무슨까닭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가? 너무 신비하지 않은가?

오늘날 한반도의 한국인은 Mito-chondria 연구에 의하면, 약60~70%가 북방계(천손족설화, 기마민족문화 등)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약40~30%는 남방계(난생설화, 물고기문양, 벼농사, Dravida어 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과학이 일러주는 한민족의 대이동인 것이다.

러시아 과학원의 자하로프 박사와 이홍규/주채혁 교수는 [바이칼 원주민의 미토콘드리아와 DNA변형] 이라는 논문에서 Buryat 족과 Soyot 족이 한국인과 같은 줄기로 연결되어 있다고 발표했고, 서울대의 이홍규 교수도 북아시아인들의 체질을 연구한 결과, 한국인의 원류는 약25,000년 전에 흑독한 빙하기를 견디고 Baikal 호수 일대에 살았다고 추정되는 유전학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했다.

이루쿠즈크대학의 스비닌 블라지미르 교수는 Baikal 지방을 20~30만년 전 인류의 발원지 중 하나로 보면서, 이곳의 Buryat 족(‘부리’는 ‘불’이고 ‘부여’의 ‘불’과 맥을 같이하며 Phrygia와 연관된다)의 일파인 Khorì 족(‘카오리’, ‘가우리; 고구려’로서 우리민족 중 부여족임)의 기원을 약20만년 전으로 올려 보고있다.

Baikal은 브리아트어로 ‘신들의 골’인데, 천손족을 차치하는 우리민족이 전통적으로 하늘과 조상에 제사드리는 풍습이 먼저 떠오르고, 종교적 사고방식과 문화, 현지에 전해오는 전설들을 살펴보면, 멀고먼 Baikal과 한반도 사이에는 너무도 많은 공통점이 있다. [몽골비사]가 전하는 몽골의 여시조(女始祖) ‘알랑고야’의 아버지 계통(父系)인 **코리족(Khori; 梟離)**의 탄생비화는, 현지에 있던 황소가 하늘에서 내려온 **백조**와 결혼하여 11형제를 낳아 이들이 코리족(‘부여족’의 표기?)의 시조가 되었는데, 우리의 후기 한국의 12연방국 중 하나 이었다.

하늘과 땅을 내왕하는 영물이며 신의 사자인 우아한 모습의 백조를 조상으로하는 몽골인과, 한반도 곳곳에 산재한 솟대와 그 위의 새들이 철따라 몽골과 한반도를 오가는 철새가 되어, 고향 땅의 조상들과 후손들이 영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다.

내몽골 적봉시(赤峰市)-오한기(敖漢旗)-홍산(紅山)-연산(燕山) 일원에서 계속 발굴되고 있는 농기구, 식기, 옥 공예품, 장식품 및 편직물 의상 등의 홍산(紅山) 문명{방사성 탄소 연대측정 결과 ① BC6150년대의 흥융와(興隆洼) 문화와 ② BC3000년대의 청동기가 출토된 홍산 문명 및 ③ BC2200년대로 밝혀진 하가점하층(夏家店下層) 문명으로 연결되는 유적지이고, 강원계인 소위 漢族문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은, AD1993년 8월의 ‘중국북방 고대문화 국제학술연구회’에 참가한 11개국 100여명의 학자들이 전세계 최초문명이라고 공인한 동이문명인데, 이곳의 당시 주인공은 후기 한국과 배달국의 한민족이었으니, 그동안 가장 빠른 역사로 인정받아 온 Egypt나 Mesopotamia 보다 약2,000여년 앞서는 한민족의 역사가 이제 찬란한 모습을 드러낸다. 배달-한국을 만나려니 심장이 고동친다.

러시아 민속학자 R. S. M 자리기시노바 여사는 ‘구석기시대에 인류가 살았고 신석기시대 초기(약12,000년 전)에 이미 독자적인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그때 이미 한민족은 주변에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높은 독자문화를 갖고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5,500년 전 요녕성 능원(凌源)의 우하량(牛河梁) 유적에 있었던 여신묘(女神廟; 사당/궁궐?)는 미개한 부족사회가 아닌 강력한 정치세력이 존재한 시대(배달국)였음을 일깨워 준다.

중국측이 周 이전을 신화와 비과학으로 치부했다가 **갑골문 판독과 관련유적의 발굴**로, 요순하은(堯舜夏殷)뿐만 아니라, 이전의 소호/신농/현원/복희(少昊/神農/軒轅/伏羲)까지를 역사(인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사실은 이런 내용이 이미 [시전/서전/맹자(詩傳/書傳/孟子)] 등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사기]의 왜곡으로 부정해왔던 것이다. 늦게나마 깨우침바에는 아예 ‘옛날과 선조’가 ‘한민족’의 한국-배달-조선이고, 자신이 그후손임을 알게되길---

부여의 시조 해모수(解慕漱; 東明)가 저녁에는 하늘로 올랐다는 기록(북부여기)이 있고, 고구려(‘가우리’; ‘코리/Khori’)의 벽화에는 백조를 타고 가는 선비가 있고, 대구 비산동에서 출토된 청동검의 손잡이에 장식된 두 마리의 백조, 일본무존(日本武尊)이 죽은 뒤에 백조가 되어 왜국을 향해 날아갔다는 기록([일본서기])과 우리 민화(십장생화 등)와 도자기에서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백조는, 구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이심전심(以心傳心)’ 이나 Telepathy가 느껴지지 않는가?

BC8000년경 고원지대를 떠나 서남진한 수밀이계(Sumer-Korean)가 Sarasvathi(현재의 Indus 강)를 거쳐, 조선후기의 혼란한 때(BC300경)에 육로나 해로로 만주와 한반도에 귀향하는 한편, 대륙의 중원을 거쳐 동으로 황하/장강/난하/대능하/요하/대동강을 다스리고, 결국 만주와 한반도에 미리와서 머물던 **한계 한민족(Han-Korean)**이 먼길 돌아 귀향한 수밀이계를 재회한 **한민족의 대이동** 이다.

Israel(토박이 이스라엘인을 Sabra라 함)은 고대에 12개 부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 유럽,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하나의 부족만 어디로 이동했는지 모르고 있으며, 그 사라진 부족 (lost tribe)의 이름이 ‘Dan’ 이란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단(Dan)’과 후기 한12연방국의 하나인 수밀이(Sumer)와 우루(Ur/Uruk), 그리고 단(壇; 땅/土; 桓/韓; 祭壇/蘇塗/神市/阿斯達/阿爾斯陀; 肅愼/朝鮮/九黎/句麗/夫餘; Fururi/Phrygia/Pyramid/Stupa/Ziggurat/檀君 등)과 Truk계 민족의 국명 (Kazakhstan/Uzbekistan/Trukenistan/Tadzhikistan/Kyrgystan/Pakistan/Afghanistan)에 쓰인 항렬자(行列字) ‘-Tan’은 어떤 관계인가?

[삼국유사]는 가라국 수로왕의 부인 허황옥은 인도 아유타국 공주로서 AD48년에 배로 대가라에 와서 황후가 되었는데, 허황후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김해 예안리 고분 등의 왕족유골을 분석한 결과, 우리민족의 기원으로 분류되는 몽골의 북방계가 아닌 인도의 남방계로서, 허황후의 인도도래설이 사실일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라는 발표가 있다 (서울대 서정선 교수와 한림대 김종일 교수). BC8000년경에 고향을 떠났던 수밀이계 한민족이 8,000년 뒤에 가라/가라로 돌아온 것이다.

미토콘드리아 유전물질(DNA)은 가계도와 진화연구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바, 우리민족은 수로왕의 북방계와 허황후의 남방계가 유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설명되니, 이 또한 한민족의 대이동이 낳은 결과이다

최근 오사카 의대 松本秀雄 교수가 항체유전자(抗體遺傳子)를 이용하여 몽골 족의 혈청중에 Gmab3st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Baikal호의 Buryat 족의 52%, 한국인의 41%, 일본인의 45%에서 Gmab3st를 찾았다고 한다.

100-6-2. 종족;

분열과 통합의 반복으로 순수 단일종족은 없고 혼혈이 된다.

한민족(桓/韓; Han);

- (1). 울(鬱); 우루(虞婁); Ur/Uru →
소머리/수밀이/須密爾; Sumer→
구려(九黎/九麗); Kooryo →Korean→
조선(朝鮮); 한(韓); Josun/Chosun/Han→
예맥(濊貊); 부여(夫餘; 불); Yea/Maek/Booyo/Fuyo/Fururi→
고구려(高句麗); Kokoory/Kokooryo→Korean
고려(高麗); Corea/Korea→
* 동이(東夷); 동호(東胡); 통고사(通古斯); Tunghus = Mongoloid
- (2). 풍(風); 훈(獯)/흉(匈奴); 한(漢); 돌궐(突厥/土耳其/투루크;
토번/吐蕃); Feng/Fun/Hun/Fururi/Scythai/Chinese/Truk/Tibet→

100-6-3. 언어; (a). Tunghus 어; 만주, 한국, 일본.

- (b). Mongolia 어; 몽골, Tibet, 중앙 아시아 국가.
- (c). Yakuut 어; 중앙 아시아 국가, Turkey, Tatar.
- (d). Ural 어; Hungary, Finland.

100-6-4. 이동; 서낭당(先王堂, 蘇塗, 祭壇, 神殿, Pyramid, Stupa, Zigurat 등)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연결된다.

100-6-5. 이동경로별, 시대별 종족, 언어, 국가.

시 대	중심지/문명	종족/언어
전기한국 BC66484	Baikal/Altai/Mongol	* 한(桓/韓: Han)-九黎-濊貊-朝鮮/韓-夫餘-高句麗-高麗--Korea: 한국어/조선어 * 묘(苗: Miao) * 동이(東夷: 東胡: 通古斯: Tunghus --선비(鮮卑)--거란(契丹) * 몽골(蒙兀: Mongoloid)--몽골어
후기한국 BC8936	㉠Pamir(波奈留)/Tianshan(天山)/Kunlun(昆侖) ㉡Astonia-Zagros, Catallhuyuk Syria/Arab - Nippur	후기 한국 * Aryan/Ubaid/Sam — UR, URUK, KISH
배달국 BC3898	㉠대륙 중원(九黎) ㉡감숙(甘肅) 신강(新疆) 청해(青海) 감숙, 서장(西藏) ㉢Armenia/Caspi/Astonia-Troy C. Mesopotamia-Mesopotamia C. India-Indus-Sarasvathi C. Aegea-Greece/Creta -Aegean C. / Minoa C. / Helladic C. Egypt-Egypt C.	* 九黎/東夷: Korean/Han * 묘(苗: Miao) * 회(回: Hui), 여(黎), 위구르(維吾爾: Uighur) * 강(羌: Qiang), 풍(風: Feng)→훈(獯)/匈奴 * 장(藏: Cang)--토번(吐蕃)--Tibet * 돌궐(突厥: 突騎施: 土耳其: Turuk/Turgis) * Amori/Sam/예맥 TROY * Aryan/Ubaid/Sumer UR * Dravida/Aryan/ Moenjo-Daro/Harapa * Lulubi/Gutium URK KISH * Ionia/Akea MINOA KNOSSOS MARUMERU LAGASH, AKKARD
조선 BC2333	㉠ 대륙중원(朝鮮) ①란하/능하/요하; Baedal-Josun C.(요녕) ②대동강; Baedal-Josun C. (대동강) ③황하; Baedal-Josun C. (양소) ④장강; Baedal-Josun C. (용산) ㉡ Himalaya(喜馬拉雅)/India(身毒)-Indus-Sarasvathi C. ㉢ 운남/광둥/광서/동남아 ㉣ 중앙 아시아/시베리아 ㉤ 남 유럽-Tripolia C. -Hittite C. Astonia/Greece-Mikene C. Medt. Sea-Europe-Greece C. ㉥ Egypt/Africa-Egypt C.	* 조선/한/구려(Josun/Han/Korean)-예맥/부여 * Dravida/Aryan * 장(壯: Zhuang) * 흉노(匈奴: Xiongnu: Hun): Scythai(BC400) 훈족(獯鬻)/설유(獯鬻)/순유(淳維): Huns 험윤(獯鬻): 위구루-BC2200-BC200 * Desallica/Donia TRIPOLI * ; HITTITE/BABYLONIA/MIDANNI/MIKENE * Elam/Phoenicia/Fruri/Pelagii: PHOENIA/PHRYGIA /SYRIA * Akea/Desaria * Ramses/Mose EGYPT

100-6-6. 중요 이동경로 간 문화적 연결. 본서 100-6-7 및 100-6-8 참조.

한민족은 여러지역의 여러나라에 걸쳐 살아 움직이는 독창적 문화를 개척유지해 오고 있어서, 그 맥박은 지금도 고동치고 있고(**Tangunism?**), 몇가지 공통점(산개혼적)은 다음과 같다. 본서 100-6-8 참조.

- * 서낭당의 모양(고목/기둥에 천이 걸쳐있고 돌무지가 있다), 위치(마을입구나 고갯마루), 기능(민간무속의 중심)이 같다.
- * 거의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벼농사 중심문화로 정착하나, 기마유목민족으로 주거범위가 광활하다.
- * 버선코 모양의 신발을 신는다.
- * 아이들 엉덩이에 푸른색 몽골반점(蒙兀斑點)이 있다가 성장하면서 없어진다.
- * 윗사람을 공경하는 전통과 제사풍습이 있다.
- * 언어구조가 S+ O+ V형인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100-6-7. 한민족의 발원과 산개혼적.

우리민족의 시원에 대하여 [한단고기] 삼성기에 기록이 있다.

‘한 신인이 있어 사백력(斯白力; 태초를 의미) 하늘 아래.....이를 한국(桓國)이라 하고, 그를 하느님(桓因; 한님) 천제라 불렀다’

파나류(波奈留; Pamir) 산 아래 한님의 나라가 있으니 천해(天海; Baikal 호?)의 동쪽이다. 파나류국(波奈留國) 이라고도 하며, 남북이 5만리, 동서가 2만여 리로 통틀어 한국이고, 합해서 12국이며, 9이(夷) 64족(族)으로 이루어졌다’.

민족의 이동은 국내의 정변이나 전쟁을 통한 국가 몰락시에 급류를 타게 된다.

- a. Altai 문화의 대표적인 유물인 곡옥, 물고기 문양, 금 귀걸이, 마구, 금세공품, 거울 등은 신라고분의 출토품과 거의 같고, 신라의 목곽분과 Altai 고분의 통나무묘가 비슷하며, 노비나 가축을 함께 묻는 순장제도 같기 때문에, 우리민족의 발원지를 Altai 산맥 지역으로 추정한다.
- b. 순금 판으로 만든 신라금관은, 관대의 중앙과 양 옆에 출자형입식(出字形立飾; 실은 단목(檀木의 가지 모양 입), 뒤에 사슴뿔 장식을 하고 곡옥 등을 늘어 뜨려서 화려한데, Siberia의 무속관념과 흡사하다.
- c. 왕릉급 대형고분에서 출토되는 신라의 유리(琉璃) 용기에 그려진 무늬는 Persia와 Rome 계통의 특징적인 무늬로서, Syria, 독일, Hungary, 남부 Russia에서 발견된다.
- d. 신라 천마총(天馬塚)의 적석목곽, 물고기 문양, 천마도(天馬圖)의 반달무늬가, 고대 Scythai 문화와 또 고구려 고분벽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뜻한다.
- e. 금제 허리띠에 있는 물고기 문양도 유목민족의 특징이며, 물고기(항상 눈을 뜬 채 감지를 앓는다)에 관한 전설이 Mesopotamia와 인도 및 Silk Road 경유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물고기 문양이 북방계인 알타이 문화와 남방계인 인도문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Scythai(흉노; 훈)가 사방으로 이동하여 전파시킨 때문이다.

최근 Mexico 시 국립 인류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두개골 27개중 5개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13,000년 전의 인류로 밝혀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Chille 에서 인간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14,500년 전의 가정용 도구와, Inca 문명의 기원이 16,000년전 임을 미루어 보면, 한민족은 해빙기(11,000년전) 이전에, 빙판을 타고 Beering 해협을 건너, America 대륙에도 건너 갔다.

수밀이게 한민족이 Aegea와 Egypt 및 Astonia와 Mesopotamia에 도달하여 찬란한 문명을 남긴 것이 BC7000년대이며, Pyramid는 이미 10,450년 전에 실체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보면, 이들 또한 16,000년 전에는 그곳에 도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울산 반구대의 (40,000년전?) 한인 암각화와, 배달-조선의 고인돌을 보면, 한국(桓國)역사의 시작인 BC66,484년이 결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100-6-8. 한민족 전통의 개요.

- a. 솟대, 소도, 서낭당, 단목, 당목 등과 관련한 무속신앙이 있다.
- b. 부여 이래로 흰색을 숭상(백호, 백마)하고, 흰옷을 입는 전통(백의민족)이 있으며, 특히 상례시에는 소복(素服)만 하고 치장을 하지 않는다.
- c. 장례시 부여는 다섯달 동안 장례를 치르고, 곡(哭)을 하지만 장사 지낼 때는 풍악을 울리며 장송한다. 장례 후에 3년상(고구려와 백제) 또는 1년상(신라)으로 호상한다.
- d. 조상에 대한 제사와 국중행사(國中行事; 한가위 성묘, 친인척 방문, 공동잔치, 사습유/射習遊, 풍류/風流 등)를 통한 상부상조 정신이 강하다.
- e. 관모(冠帽)와 그 장식물을 좋아한다.
- f. 혼인풍습으로 데릴사위제와 첫아기를 처가에서 낳는 풍습이 있다.
- g. 두발풍습은 치녀는 머리를 땀아 뒤로 내리나 시집가면 위로 틀어 올린다.
- h. 인사와 예절은 두손을 바닥에 짚고 엎드려 절하며, 웃어른을 공경하여 존칭어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 i. 옷(황칠/黃漆 등)이 일상생활에 널리 쓰인다(가구, 제기 등).
- j. 순장제와 목곽묘 형식 및 후장(厚葬;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드는 무덤)을 하고, 생전에 수의(囚衣; 저승갈 때 입는 옷)와 묘지를 미리 준비하는 풍습이 있다.

우리 조상의 이동과 교류 그리고 문화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한다. 선인들에게 다가갈수록 황홀해진다. 고서가 일러준대로 그리고 조상이 남겨둔 유적을 따라 길 찾아가면 광활한 대륙에 이루어 놓은 장대한 감동의 연속이다.

기준에 받았거나 읽은 교육의 틀은 깨어 저야 한다.

[한단고기]가 밝히는 한국의 영역인 남북 5만리에 동서 2만리는 전체 아시아 크기 이다.

암각화, 고인돌, 빗살무늬 토기, 청동거울, 청동 칼, 비파형 동검, 금관, 금 귀걸이, 솟대, 서낭당, 돌무덤, 목곽묘, 순장, 벽화, 물고기 문양, 태극 문양, 율놀이 등 각종의 민속놀이, 유적유물과 언어와 문자, 풍속 등 민족의 이동과 교역지를 연결하면 우리민족의 영역이 드러난다.

지도상에 점을 찍고 선으로 이어보자. 참으로 놀랍다.

인류학계는 인류의 시원을 Asia, Africa 등으로 다원화 한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인류는 Mongoloid로 인정하고 그들의 이동과 산개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인류학계는 Altai와 Mongol이 인류의 시원지임은 알았으나, 당시에 그곳이 한국(桓國)이었음은 몰랐고, 몽고인으로만 알아서 ‘Mongoloid’라고 표기한 것이고,
Herodotus는 BC800년대의 중앙 아시아 주민을 아시아계인 Truk 족 이라 했다.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DNA비교에서도, Asia 인(Pamir 고원 일원)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계통이고, American Indian들은 Asia에서 이주해 간 사실도 밝혀졌다.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섬나라들의 Polinesians들은 그들의 조상이 약40,000년 전 먼 옛날에 동 Asia에서 왔다고 몇몇이 말한다(Hawaii 민속촌 홍보).

- * 한민족의 조상이 중국 중북부 농경민족이라는 주장.
한민족 주류의 기원은 중국 중북부의 농경민족이며, 중국 한(漢)족 및 일본인과 유전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지녔다는 연구결과(단국대 생물학과 김욱/金旭 교수)와, 기원전 5~4세기 고대 야요이 시대 일본인의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 絲粒體; 모계로만 유전하는 인체의 소기관으로, 변형이 적기 때문에 유전자의 변화와 역사를 알 수 있어서 조상연구에 이용됨)가 한국인과 일치한다는 연구결과(鳥取대학 의학부 井上貴央 교수)가 있다.

김 욱 교수는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185명(남성 97명과 여성 88명)의 입천장세포에서 Mito-chondria 세포를 뽑아낸 연구결과로, 한민족의 유전자에는 남방과 북방계의 유전자 9개 정도가 섞여 있으며, 그중 중국 중북부 농경민족에서 유래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10명중 4명으로 유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일본인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빙하기 때인 6만년 전에 탄생했으며, 장수하며 한파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인과 일본인이 유전적으로 가깝게 나타난 것은, 2,300여년 전 일본열도에 정착한 야요이 사람이 한반도에서 이주했음을 보여주는 유전적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AD815년에 왜의 지배층을 분류한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의 1,182개 가문은 거의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후기 조선인)이니,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Mito-chondria 연구결과에 의한, 그 당시의 중국 중북부 농경민족이란 바로 우리 한민족(한국-배달-조선시대)이고 중국인이 아닌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60,000년전 한(韓)족의 후손인 현재의 한민족이 유전적으로 서로 일치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본서에서 밝힌 한민족과 이동역사(한국시대의 Baikal-Altai-Mongol 중심에서 Pamir/波奈留-Tianshan/天山/-Kunlun/昆侖으로 이동한 배달시대 및 이후 조선시대까지의 아시아와 중국대륙 전체의 주인공)를 Mito-chondria가 갓속말로 들려주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인과, 한민족의 일파인 강원계(소위 漢族)의 후손인 현재의 중국인과, 일찍 조선시대부터 부여-고구려-가야-백제에 이르는 오랜기간 동안 왜를 직접 개척 경영해온 한민족의 후예인 현재의 일본인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과학의 뒷받침이 참으로 신기할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방법으로도 엄연한 이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100-6-9. Turuk계 7국과 Scandinavia까지.

Turkey(영문표기 이고 공식명칭은 Turkiye Cumhuriyeti; 튀르키예 공화국)는, 우리와 같은 위도(36도~42도)상에 위치하는 Asia의 서쪽 끝에 있어서, Asia의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직선으로 약8,000 km(2만리) 떨어져 있다.

Turkey의 조상은 Asia 인이며, Siberia의 오르혼 강변에(Hovsgol; Baikal 호수 서남) 남겨진 비문의 'Turuk'라는 명문이 발굴됐고, 역사가 Herodotus가 BC800년대에(그는 BC3500년 무렵 또는 그 이전에 신강, 서장, 감숙지역에 있었던 Turkey인의 조상에 대하여는 아는바 없었음), 중앙 아시아에 살던 이들이 'Turuk'인으로, 백인종이 아닌 황인종이라 해서 Turkey인들은 옛날부터 자신들을 Turuk라 했다.

우리사서에 의하면, 조선의 3세 가락 단군 때(BC2177년)에, 열양(황하 하류지역)의 옥살(지역통치자의 관명)인 색정(索靖)을 익수(溺水/弱水; 몽골의 Buir호)에 봉하여, 홍노의 조상이 되었고, BC905년에는 홍노가 조선에 입국했으며 신라(신라의 조상인 박혁거세/금추는 한민족의 일파인 홍노의 직계 후예임)와도 교류가 있었다.

이들은 BC8세기경부터 중국 북방의 유목민인 홍노족(Huns; 한민족의 Han과 풍족의 Fun 을 참조), AD6세기경에 중국 변방의 유목민인 돌궐(突厥/突騎施/土耳其/Turks/Turuks/Turugis/Tibet/위구르/Uighur/回回/Huiw 참조, 모두 선대의 동이/동호/통고/Tungus에서 유래함)로 나타나서 Pamir 고원을 중심으로 동서를 휩쓸었다.

대불임국(Turkey의 당시는 동로마 제국이었음) 사람들은 홍(匈)을 '훈'으로, 돌궐을 '궐튀르크'로 발음한다.

조선초기 이래로 주위 모든나라가 조선의 제후국이었으며, 서로 좋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후일 BC200년경에 진, 한 등 강원계 국가가 일어설 때에, Tibet 북부의 홍노와 Tibet 남부의 돌궐족은, 진과 한을 괴롭히는 존재였고, 이런 현상은 당(唐)대까지 계속됐다.

한민족의 일파인 예맥, 몽골, 훈, 홍노, 돌궐족 등은 모두 곰(熊)을 숭상하며, Turkey 어는 Altai 어에 속하며, 모음이 많아 부드럽고 액센트가 없고, 문장구성, 문법, 모음조화가 우리말과 거의 같다.

친밀함을 표현하는 말과 존칭어가 발달했고, 전통을 중시하며, 자존심이 강하고, 명예를 중시하고, 마늘과 고추를 많이 먹고, 술과 담배를 좋아하며, 기마민족의 후예로 축구에 열광하며, 명절에는 우리의 한가위 대이동이 무색할 정도로 일가친척을 찾아 대이동하고, 우리의 씨름과 흡사한 전통무예를 즐기며 이들의 친절은 세계제일이다.

먼 옛날 인류사의 개벽(1,000년에 한번씩 찾아오는 Sirius cycle)이 7~8번 있기 전부터 가장 멀리 서진해 간 우리의 친척이고, 한국전쟁 때 세번째로 참전했고, 연인원 15,000여명의 전투부대가 한반도에서 형제국을 위하여 피 흘리니, 3,216명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다.

발해국을 건국한 대조영이, 고구려가 라당연합군에게 패한 뒤에 당군이 저지른 우리역사 말살(설인귀 등이 불태웠다)로 남은 사서가 없어서, 아우 대야발에게 대불임국에 있는 조상(고구려)의 역사서를 구해 와서 역사([단기고사])를 편찬토록 명했다. 고구려와 대불임국(Turkey)은 어떤관계일까? 그곳 출신인 Herodotus가 아시아계 황인종(고구려)은 알면서 어찌하여 선대의 한국과 한국인은 몰랐던가?

우리겨레는 멀리 Astonia에 있는 형제를 구원토록 기억해야 한다.
산이 많아 지진이 잦은 그곳, 나의 오누이가 힘들때 얼른 달려가야 한다.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Turkey 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흑해와 Caspi 해 사이의 Azerbaizan과, Pamir 고원 서부의 Kazakhstan, Uzbekistan, Trukmenistan, Tadzihikistan 그리고 Pamir 고원 북부의 Kyrgyzstan의 6개국에 있는데, 이들 모두는 ‘tan’ 이라는 항열자의 동족 이다.

Turkey가 있는 Astonia 반도(Anatolia; 해뜨는 동쪽을 의미하는 Greece 어 이니 ‘아사달’ = ‘조선’과 무관하지 않다) 즉, 소아시아(Minor Asia)에는 인류사의 동서와 고급과 성숙(聖俗)의 문화유산이 가득하다.

약8,000년 전으로 소급하는 Aegea- Mesopotamia 문명의 발상지로서, 세계사가 축약된 Turkey는 전국이 야외박물관 이다.

1. Euprates 강과 Tigris 강의 발원지가 동부 고원지대에 있고, BC6500~BC5800년의 신석기시대 인류최초 집단거주지(건축의 기원)가 차탈회웁(Catalhuyuk)에 있다.
2. BC3500~BC2400년의 Troy 제1시(市) 유적을 포함한, 9층으로 된 Troy 유적과 Troy 목마가 있는 Truva.
3. BC1900~BC1200년간에 철기를 사용하고 선행문자(10,000여점의 점토판 발굴)를 사용한 Hittite 유적이 있는 보아즈칼레(Bogazkale).
4. BC1300~BC550년경의 농경국가인 Prigia의 수도였던 고르디온(Gordion)은, Alexander 왕의 풀리지 않는 매듭(Gordion Knot)의 현장이며, Midas 왕이 여태도 숨쉬고 있는 곳이다.
5. 최초로 주화를 제조했던 BC700~BC640간의 Lydia가 있던 사르트(Sardts); Lydia는 수학자 Pitagoras, 철학자 Diogenes, 의학자 Hipoclates, 역사학자 Herodotus를 배출한 나라이다.
6. BC3000년경의 도시로 Ionia 문명의 발상지이며, Alexander 왕이 재건했으나 대지진으로 (AD178) 파괴되었고, Rome 시대에 재건된 국제 상업도시이며, Illyad와 Odysay의 작가 Homer(BC700경)의 고향이며,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가 있는 이즈미르(Izmir).
7. 창세기의 Abraham이 태어난 곳 산르우르파(Sanliurfa)에는 Abraham의 동굴이 있고, 그가 살던 Haran(Turkey와 Syria의 국경 남쪽)에는, 야곱의 샘과 하란의 움막집이 있다. Abraham의 적자인 Isak은 Israel 민족의 뿌리 이고, 서자인 Ismael은 Arab 족의 조상 이다.
8.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① 유방이 24개로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Artemis 여신상이 있던, Artemis 신전(BC580년에 건축되었다가, BC356년 정신병자의 방화로 소실되어 훗날 다시 건축함; 133개의 돌기둥 중 1개만 남아 있음)이 에페스(Efes)에 있고, ② BC350년경에 축조된 높이 46 m의 Mausolos 왕의 묘가 있고, [역사]를 쓴 Herodotus의 고향인 보드룸(Bodrum).
9. 신화가 실제로 확인된 유적 두곳; ①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되는 Phrygia 왕국 당나귀 귀를 가진 Midas 왕의 대형고분과, 그가 쓴 책상이 있는 Gordion.
② Troy 목마와 유적이 있는 Truva..
10. Ullius Cesar가 ‘왔노라, 보았노라, 정복했노라; Veni, Vidi, Vindi’라 외친 Amasia.
11. 신약성서의 사도 바울(Apostle Paul)의 고향인 Tarsus에는 바울의 샘과 바울 기념교회, Cleopatra의 문이 있다.
12. UNESCO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Nemrut 산 정상에, BC190~AD72년 간의 Kommagene 왕국의 신전과, Antiok 1세의 거대한 석상(10 m 높이), 그의 능묘(50 m 높이), 신상들(7 m 높이)과 제단이 있다.
13. 초기 기독교 박해 때의 피난처인 기암괴석의 동굴교회 즉, Capadokia 왕국(BC257~BC64; 현재 Nevsehir, Koiseri, Nigde를 잇는 삼각지대)이 있던곳 가운데에는, 젤베(Gulbayir)의 요정 굴(평균 30 m 높이의 원추형 돌기둥에 1~5개의 구멍이 있고 그속에는 교회가 있는데, 모두 1,000여개의 교회중 150여개에 성화들이 그려져 있음)과 위치히사르(Yesilhisar)의 기암동굴, 데린큐유(Derinkuyu)와 카이막클르(Kaymaklr)에 연결된 지하 20층의 지하도시가 있다.
14. 에페스(Efes; 구명은 성서상의 에베소 이고 요한복음의 무대)에는 박물관에 Artemis 여신상이 있고, 사도 요한교회와 그 무덤, 대리석으로 된 3개의 대로와 그 양옆의 하수도 시설, BC3세기에 건설된 반원형 대극장, 술집광고, AD110~135에 완공한 Selcius 도서관, 성모 마리아가 승천한 마리아의 집이 있다.
15. Bergama(구명 Pergamon)는 Troy 이래의 도시로, BC334년 Alexander 왕이 Persia의 Dalius 9세를 격파한 곳이고, Bergamo 왕국(BC283~BC133)의 천연요새이다. 산 정상에 Acropolis 왕궁에는 Zeus 신전, Dionisos 신전, Trayanus 신전, 도서관이 있고, 시내에는 하천 위에 세운 Serapis 신전과 BC4세기에 세운 종합병원 Asklepiion

- (Hippocrates가 근무했다)이 있는데, 이 병원은 일반치료외에 음악요법, 명상요법, 진흙목욕법, 심리요법 등의 치료시설을 갖추었다 한다.
16. 파묵칼레(Pamukkale)는 성서 골로새서에 언급된 도시로, 맨위의 35°C 탄산수소 온천물이 흘러내려, 석회가 침전되어 생긴 신비한 경치와 원형극장, 온냉목욕탕, 사도 빌립의 순교교회(AD80)가 있다.
 17. 아라랏 산(Ararat; Turkey 최고봉 5,165 m로 지금은 아으르/Agri 산)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Noah's Ark)가 발견되었다고 하며, 흰눈을 머리에 쓴 白頭山으로 Armenia 인들은 Eden 동산 이라 믿고 있다.
 18. 안타키아(Antakia; 성서의 안디옥)는, 안디옥 동굴교회가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Nuk)의 고향 이다.
 19. Patala는 산타크로스로 알려진 Nicolas의 고향 이다.
 20. 남부 휴양도시인 Antalya 일대에는 Karain 동굴유적, Perge 유적 외에 Rome 시대의 유적이 산재하다.
 21. Istanbul에는 성 소피아성당(Hagia Sophia), 마흐무드 2세 황제(AD1808~1839)의 톱카프 사라이 궁전, 술탄 아흐메드 사원(Blue Mosk), 고고박물관(Alexander의 석관이 있음), AD532에 건설된 지하 저수조, 돌마 바흐체 궁전(AD1834~1856), 루벨리 성, Orient 특급열차, Pera Palas Hotel 등이 있다.

* 3. 또다른 백두산 Ararat.



터키의 최고봉 아라랏 산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라 한다.